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

(定價 一個月 九十錢)

社說

南總督赴任에 際하야

一

宇垣前總督의 後任으로 南次郞大將이 今廿六日 赴任한다. 今般 總督의 更迭은 朝鮮內의 政治的 變動에 基因한것이 아니므로 新總督의 赴任으로도 統治에 重大한 變動이 잇스리라고 생각지는 안치나 南新總督은 今番 赴任에 際하야 全然 白紙主義로써 朝鮮人의 利害를 考察하야 善處하겟다고 聲明하얏스므로 朝鮮의 實情을 들어 그의 批判을 試하는 어떠가 그機會일것이다.

二

現在의 朝鮮은 言論、集會、結社、出版의 自由가 極度로 制限되어잇다. 政治的 集會는 말할것도 업고 모든 集會는 極度로 制限되어잇서 學術講演會 가튼것도 一一히 講演內容을 當局에 提示한 後에 許可를 엇도록 되어잇스며, 우연히한 集會結社는 治安을 妨害한다는 理由로써 解散된다. 出版에 잇서서도 日本內地人에게는 納本制度로 되어잇서 自由로 出版物을 낼수잇스나 朝鮮人에게는 檢閱制度가 施行되어 잇기때문에 一一히 當局의 檢閱을 마려야 出版하게 되어잇고, 그水準은 極히 低級하야 出版의 自由를 일코 잇다. 特히 新聞雜誌는 日本內地人과 朝鮮人에 따라 適用法規가 달라 前者는 認可制度를, 後者는 許可制度를 適用하고 잇다. 그러므로 朝鮮人 民間側에 新聞紙法에 依하야 發行되는 新聞、雜誌數는 極히 적어 新聞은 三、雜誌는 皆無라 할만하며, 그것조차 制限이 甚하야 警告、削除、押收가 만타.

三

다음 經濟上으로 보드래도 朝鮮人의 經濟生活은 萎微不振함을 免치 못하고 잇다. 京城、平壤、咸興等地를 中心한 商工業의 殷盛은 日本內地人에게서 볼수잇슬지언정 朝鮮人에게서는 볼수업다. 商工業은 獎勵하되 中小商工業의 保護는 等閑視한 때문이다. 特히 最近 統制經濟때문에 多少의 存在를 가진 朝鮮人 中小商工業이 그 影子를 稀薄하게하야 가는 感을 주는 것은 숨길수 업는 事實이다. 商工業에 그치지 안코 農村의 疲弊는 一層甚하다. 宇垣前總督은 自力更生、農村振興을 標語로 相當히 農村에 注力한 모양이나 結果에 잇서서 自作農의 大量的 小作農化와 流離化를 防止하고, 自作農、小作農의 生活을 裕足히 한것으로는 생각되지 안는다. 하물며 長期的 漁民만 가진 漁村이랴.

四

敎育에 잇서서도 朝鮮人의 希望은 그 十分의 一도 實現되지 못햇다. 初等敎育의 義務制度는 벌서 主張한바어니와 今年에 겨우 當局의 一面一校를 完成하고, 今後 十年을 지나야 一面二校制로써 學齡兒童의 約四割을 收容하리라 한다. 그 新設될 普通學校가 거이 四年制의 것임에랴. 中等學校는 年年 入學難으로 約倍數가 落第하게한 高等의 增設은 國費으로 中止하고, 民間의 私立高等敎育機關도 公立實業으로 統制하야 入學難의 緩和할것을 要望하고잇다. 高等敎育機關에서는 入學에 公然한 핸디캡이 잇서 朝鮮人으로서 高等敎育을 밧을 機會를 적게 엇고 잇슴에랴.

五

要컨대 朝鮮人은 現在 政治上 經濟上 敎育上으로 極度의 制限을 바다 向上、發達할 機會를 일코잇다. 朝鮮의 富와 朝鮮의 文化는 向上、發達되어슬지 모른다. 그러나 朝鮮人의 福利와 富와 文化는 그 比例로 向上、發達되지 안엇다. 一部의 方面에서는 그反對의 現象조차 나타낫다. 우리가 新任하는 南總督에게 바라는바는 이러한 諸事情에 對한 根本的 革正의 一事다.

中國의 統一强調코 日本外交를 論難

廣田三原則은中國을完全히支配하려는것

胡適氏太平洋會議에서

【요세미테廿四日發同盟】太平洋會議는 二十三日로써 蘇聯邦問題의 討議를 終結하고 二十四日에는 中華의 復興計劃을 議題로하야 討議에드러갓다. 劈頭中國主席代表 北京大學總長 胡適氏는 中國에 關하야 次와如히 述하엿다

南京政府는 이미 道路、鐵道建設、工業、治水等 各施設의 完備와 國家統一의 實質的基礎를 着着닥거가고잇다 蜿蜒十萬킬로에 及한鐵道에 依하야 政府는 共產軍及最近의 兩廣軍閥內亂鎭壓에 成功한 中國의 復興統一은 將來에도明白히 알려질것이다

다음으로 胡適氏는 日本의對中外交를 論難하여日 中國現在의 狀態에 對해서는 日本에 만흔責任이잇다 廣田首相의 所謂對中三原則이라것은 中國을 完全히 그政治的 支配下에 두려고저하는 日本의 中國統一妨害의 目的을 가장 明白히 表示하고잇는것이다 中國은 如斯한 妨害를 爲하야 어대까지 決意를 가지고잇다 日本은 全國統一中國을 安定시킬수잇는 政府의 存在를 許치 안흘 方針인듯해보인다——日本은 中國으로하여금 戰爭類似의 狀態를 繼續시켜서 滿洲를 奪取하고 또한 中國이經濟的建設을 爲하야 他國과 協力하는것을 禁止하고 中國의平和的復興事業을 妨害하는者이다 마즈막으로 胡適氏는 蘇、中關係에關한 報告書를 朗讀하엿다 右胡適氏의 論難에對하야 日本代表는 應酬하여日

日本은 中國과의 提携를하고저한다 日本의 이希望은 國際聯盟에서 보이엿고 又日本政府의 對中一般態度에도 明白하지안흔가 日本은 참으로 中國의復興을 希望하는者이다

다음으로 아메리카外交協會幹事 비스론氏는 中國復興最善의 方策은 中國이 武力抵抗의 必要에서 逼迫되지안코 復興事業을 繼續할수잇도록 國際間의 協調를매저야할것이다 고 述하엿다 다음으로 아메리카太平洋問題調査會長 [illegible]氏는 이問題에對한 太平洋問題調査會의 進涉을報告하고 太平洋問題調査會는 中國의 [illegible] 東에서의 積極的協力이나 消極的 [illegible]를 決定하지안코 [illegible] 고論하야 注目을 [illegible] 여안되겟다

西班牙動亂畫報

칼멘으로잇흠난 情熱의나라 西班牙는 同胞相殺하는 戰亂의 巷으로 化하엿다 男女老幼가 서로 아롱다루어 祖國을 망쇼의 危機로부터 救하려는 意氣는 바야흐로 全國을 風靡하고잇다 愛國은 武器를손에쥐고 男性에 任하야 戰線에선 西班牙女軍의 三態

國策의 趣旨概要

閣議에서 決定된七項目

【東京電話同盟】二十五日定例의 國策閣議에서 決定된 國策七項目의 趣旨概要는 大略 如左하다

一、國防充實 現內閣의 組閣當初부터 約束한 最大國策으로 陸軍의 新國防充實三十億圓六個年計劃、海軍의 新充實約二十億圓五個年計劃의 彪大한 國防計劃이다

一、敎育刷新改善 平生文相의 義務敎育年限延長問題는 그根本主旨에는 異議가 업스나 敎育內容改善과 切離하야 卽時 實施할 與否는 相當히 考究할餘地가 잇스므로 結局 明年度에는 準備費만 計上하는 程度에 끄치고, 實施期를 延長하여 그동안에 다시 充分한 內容의 再檢討를 行하려는것이다

一、中央、地方을 通한稅制整理 馬場藏相의 信念에 基하야 就任同時에 劃期的인 稅制整理를 企圖하야 이미 그大綱方針을 決定하엿는데 그中心은 所得稅收益稅이다

一、國民生活安定(災害防除對策、保健施設의 充實、農山漁村經濟의 更生擴充及中小商工業振興等) 保健及 中小商工業問題를 除하고는 거의全部가 農林省關係의 政策으로 島田農相의 提案中에는 農地制度改革、負債整理擴充外에 三項目을 提出하야 此等五項目의 全面的採擇을 主張하엿스나 馬場藏相의 裁定案과의사이에 若干의 相差가 生하엿스므로 爲先 一括하야 農山漁村의 更生이라고 改稱한것이다 內務省提案인 保健省新設은 內務省을 爲始하야 關係各省에 具申하엿스므로 이미 內閣調査局에서 具體案의 立案에 着手하고 또中小商工業振興案은 當初 商工省에서 提案하엿스나 廣義國防的產業政策에 編入하엿기때문에 그含에 이를附하다

一、產業振興及貿易伸張(電力統制强化、液體燃料及鐵鋼의 自給、纖維資源의 確保、貿易의 助長及統制、航空及海運事業의 振興、日本人의 海外發展助長等) 電力統制强化라는것은 最初 賴母木遞相이 電力民有國營案을 提出한것인데 이에對한 反對로 國策項目에서 [illegible] 統制强化라는것이 되엇스므로 따라서 그內容은 實業家들에게 有利한 統制强化가 될 形勢에잇다 液體燃料、鐵鋼의 自給自足은 主로 廣義國防的見地에서 採擇하고 [illegible] 에서는 [illegible] 從來 全然히 政治的問題로 任하게되어잇다 貿易伸張에 關해서는 現行貿易行政組織을 合理的으로 統制强化하고 또海運及 國內產業의 振興을 圖하는以上 고實現은 뭐 必要하다

一、[illegible] 民政策은 아직 國策으로서 具體性을 가지지못하엿스므로 이것에 잇서서는 滿洲國의 [illegible] 及하야 이不安定한點이 對滿政策遂行上 重大한障害가 되어잇다 그래서 [illegible] 二十個年五百萬人의 移民計劃을 樹立하고 同時에 [illegible] 以外、資本金增加等을 考慮中이다

一、行政機構의 整備 廣田首相은 組閣當初의 聲明에서 [illegible] 刷新을 實行하야 現內閣에서 보담 [illegible] 이 實行할 政策內容에 關하야 改善할것이잇스면 機構를 改革한다는 根本的行政改革은 到底히 期待키 難한 狀態에잇다 이에 對하야 [illegible] 根本改革은 [illegible] 實現을 要望하고잇스므로 國策項目中에도 [illegible] 抽象的으로 [illegible] 고名義를 올린것이다

項目은決定되엇스나 具體的實行이問題

實行方法如何는今後에殘存、不安은未解消

國策決定까지의經緯

【東京電話同盟】廣田內閣의 金看板인 庶政一新의 實을擧할國策項目은 今二十五日閣議에서決定되엇다 廣田內閣은 二、二六事件直後 極度로 緊張된 空氣에 成立되여 庶政革新을 斷行할 運命을가지고잇다 組閣中途에 庶政革新斷行의 聲明을 發하고 組閣後 三月十七日閣議에서 庶政革新을 根幹으로 施政方針의 聲明書를 決定하야 上聞에 達한後 聲明書를 發表하고 廣田內閣으로서는 庶政革新에關한 決死的悲壯한 決意를闡明하야 各省에 革新政策의 實現을 提示하고 閣內一致國策樹立에 進出하엿든것이다 그리고 各省에서는 此를 指目하고 國策立案에 着手하엿스나 去五月二十九日閣議에서 廣田首相으로부터 閣議中心主義로 國策을決定하야 新國策을 內閣에 提出하기로 要望하고 馬場藏相은各省豫算의 爭奪의 弊를 除去하기爲하야 閣議中心主義로 先議案을 決定할旨를 提示하고 各閣僚가 同意하야 眞摯하게 國策樹立工作을 開始하야 各省이 相當히 國策의立案을 急히하고 遞信省과 如한것은 손빨리電力國營、航空國策、海運國策의三大項目을 決定하고 七月三日 閣議에서 賴母木遞相으로부터 이미 其三大國策을 斷行하지안흘수업다는 決意를示하고同七日閣議에서는 所謂司法省의 機構擴充을主眼으로한 國策案을 說明하다 文部省의 義務敎育延長 內務省의 土木國策 保健國策의 說明을開始할 豫定이든바 各省의 國策中에는 國策이라기보담 新規要求로 看做할것과 低廉한 政策이 國策의假面을쓰고 뛰여나올뿐더러 一次閣議에 提出된 國策이 國策으로 採擇되지못할境遇 主管閣僚의 面目問題를 惹起하야 閣僚全體에 及하고 따라 內閣全體의 運命에도 關係되는 重大問題가될 憂慮가잇슴으로 七月十日 閣議에서 廣田首相으로부터 國策閣議를 中止하고 各省의 國策은 文書로內閣及各省에 提出하야 側面工作을 行케하고 廣田首相 馬場藏相이 國策으로 採用할項目을 銓考하기로 決定하라는 旨를 提示하야 各閣僚의 承諾을 어덧다 따라 廣田首相은 書記官長 次田法制局長官을 督促 藤沼各省의 國策提出을 督促 吉田調査局長官에 各省提出國策案의 基礎調査를 命하는一方 調査局으로하여금 研究立案한 案과 照會檢討케한後 馬場藏相은 國策提出各省大臣과 折衝하고 藤沼、吉田、次田三長官에 對하야 側面工作을 行케하고따로 前田鐵相 永田拓相의 斡旋에依하야 各省大臣의 諒解를 얻어 庶政一新 斷行을 熱望하는 寺內陸相 永野海相과 廣田首相 馬場藏相의 四相會議를 開하고 國策項目을 決定하야 各閣僚의 諒解를求하야 一致의準備工作을 終한것이다 今回에 決定한 國策은 單히 項目을 決定한것으로 三月十七日 聲明을 具體化 한것에 不過하나 此等 國策에 殘存된 것이 되여잇다 그리고 文部省의 義務敎育年限延長問題에 對하여는 文相은 實施期를 延延치안토록하나 文相은 一項目으로 實施期를 急하기로 決意한 模樣이다 그리고 這間의 關係各省間에意見의對立된것도잇고 具體的決定의實施期에 對하여는 財政과의 關係도잇고 又復紛糾를 볼것은明瞭한바 要컨대 國策項目의 決定은 말하자면 題目의 決定으로 問題는 依然今後에 殘存되여잇다 [illegible] 通相과 永田 前田兩閣僚間에見解의相違가잇슬뿐더러 閣內에서는 軍部閣僚가 遞信省案을 支持하고 永田 前田 平生 小川各閣僚는 電氣業者及 財界의反對를 緩和하는 案으로 修正할意見을 갓고잇는것은 明瞭한바 一部에는 賴母木遞相의 進退問題를 惹起할 虞慮가充分히잇는바 假令 閣議에서 意見一致되엿다할지라도 議會를 通過되여잇 [illegible] 로 國策決定에 伴하는 政局不安은 項目決定만으로 一掃한것이 아니라 依然 殘存된것이다 卽電力統制에 對하여는 賴母木遞相과 永田 前田兩閣僚間에見解의相違가잇슬뿐더러 閣內에서는 軍部閣僚가 遞信省案을 支持하고 永田 前田 平生 小川各閣僚는 電氣業者及 財界의反對

叛軍兩市를空襲

이룬市死者百名

首都空襲政府도肯定

【상데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北部叛軍은 二十三日 산세바수찬 이룬市는 死者百名을 내인外에 多大한 損害를 蒙하엿다한다

【마드리드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二十四日 叛軍飛行機가 首都마드리드를 空襲한 事實을 肯定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叛軍所屬飛行機가 二十三日早朝마드리드郊外 헤라페 飛行場에 爆彈을 投下한것은 事實이나 조곰의 損害는 업섯다

리나號도 산세바스찬砲擊에 參加하야 同市에 砲火를加하엿다

北中經濟幹線

津石鐵道를建設

【北平二十四日發同盟】北中經濟開發은 川越大使今回의 北上을 契機로 마침내 實行期에 入하야 產業金融各方面에 華華한 北中建設時代를 마지하려는데 爲先 產業開發의 第一段으로 實際政治에 一致하야 資源地와 海港과를連結할 經濟幹線의 敷設에 着手하기로 되여 山西省의 石炭及 河北省의棉花를輸送키爲하야 津石鐵道(天津石家莊)을 敷設하기로 決定하엿다 卽 津石鐵道는 北中最大의門戶인 天津과 平漢線石家莊을 結하는線으로 從來 南京政府鐵道部와 日本華勝公司와의 契約에依하야 計劃된 津石鐵道보담 도 直接 天津에 連絡하는點에 잇서 크게 有利한것이다

影佐中佐上海行

【天津二十五日發同盟】北中武官會議에 出席하야 歸還中央部의 對北中方針을 傳達한 影佐中佐는 二十五日 午後五時五十分天津發 飛行機로 上海에 直行하엿다 上海에서 大使館付 武官 喜田少將과 會見하고 北中武官會議經過를 報告할터이다

維也納市에突然

特別警備令宣布

【維也納二十四日發同盟】維也納警察部는 今夕니首相閣下의 카아 軍國突擊隊와 協力하야 二十四日午後 突然 維也納市에 特別警備令을 宣布하고 兵凡二百을 官邸의 所在한 郊外에 派遣하고 明瞭치안흐나 反나치스의 [illegible] 이 [illegible] 잇다는說이 [illegible] 하다

政府所有米買換

◇……二百萬石을決定

廿五日米穀統制委員會에서

二百萬石의買換(其中五十萬石을먼저賣却)을決定

【東京電話同盟】米穀統制委員會는 二十五日 午後三時 農林大臣官邸에서 열고 政府所有米二百萬石의 買換(其中五十萬石을 먼저 賣却)을 決定하고 午後三時二十分 散會하엿다

駐蘇大使에重光氏

今日아그레망到着

【東京電話同盟】太田駐蘇大使는 압서부터 後進에게 길을 열기爲하야 辭意를 表明하고 잇던바 有田外相은 後任으로 前外務次官 重光葵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蘇聯政府에 아그레망要請手續을 取하고잇던바 二十五日 아그레망이 到着하엿스므로 有田外相은 卽時 同日의 定例閣議에 報告하야 各僚의 諒解를求하야 署中이므로 親任式은 行하지안코 廣田首相으로부터 上奏御裁可의 手續을 取하야 官紀傳達後 兩日中에 如左히 發令할터이다

任特命全權大使 前外務次官 從四位勳二等 重光葵

蘇聯邦駐箚被仰付

特命全權大使 太田爲吉

待命被仰付

經濟諮問機關

總督府內에設置

【東京電話同盟】朝鮮總督府에서는 近時 內外情勢와 最近의 朝鮮一般產業經濟發達에 鑑하야 從來의 產業經濟指導方針을 再檢討하고 널리 一般資源 貿易 金融 交通 水產 農業等을 調査하야 將來의 發達에 對하야 有效適切한 方策을 樹立하려고 今回 朝鮮總督府에 豫算三萬圓으로써 朝鮮產業經濟調査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五日의 閣議에서 承認을 어덧다 總督府의 諮問에 應하야 朝鮮의 產業과 經濟上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고 諮問機關으로 會長에 政務總監이 就任하고 委員은 關係各局長及 學識經驗잇는者中에서 任命하는것으로 그 第一回會合은 九月中旬京城에서 開催할 豫定이다

人事·集會

◇宋基明氏 京城府會議員立候補

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廿五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六六〇〇	(不變)
新新	一六〇五〇	(一〇低)
日産	七八七〇	(不變)
東新	一二三三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四一〇〇 先限 七二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二五〇 先限 六〇二〇

秋季新學年 校外生募集

左의講義錄讀者는 모—다本大學의校外生으로서待遇한다

講義는極히平易明快하야 누구나容易하게理解할수가잇다

詳細한것은內容見本에依하야야어서라

早稻田大學講義錄

中等學校程度

講義	定價	期間
中學講義	月一圓	前後期各一年
商業講義	月一圓	一年半
高等女學講義	月一圓	一年半
電氣工學豫備講義	月一圓	一ヶ年

專門學校程度

講義	定價	期間
政治經濟講義	月一圓二十錢	一年半
法律講義	月一圓二十錢	一年半
文學講義	月一圓三十錢	一年半
建築講義	月一圓三十錢	一年半
電氣工學講義	月一圓三十錢	一年半

內容見本 見本은 希望하시는 講義名을 써서 申込하시오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三 電話牛込三四五

白頭山行

林又林,樹復樹! 大樹海中編隊潛航

倒木과 진펄의 險難을 무릅쓰고 ● 聖地를 찻는 苦行群!

백두산의삼림속에 드러와서 첫로영하로밤, 이것만하드라도 좋처럼씻지못할 인상이 남을터인데일생에 이즐수업는 빼저린비극을 남기고 무봉을 떠나우리는 다시밀림속으로 무처버리고 마럿다。 가도가도 밀림이다。 작고어린놈은 물바달나무 크고허우대조흔놈들은 의갈나무、(落葉松) 연록색(軟綠色)입사귀에 흰껍질로 손목단장을한채 의갈나무못지안케 희멀숙하게 빡아선 벗나무(白樺)、의갈나무를 남성적이라면 벗나무는 녀성적。 풀에서 빡아노흔것가튼 멀숙한 허우대들이 보고보고또보아도 지리하지를안타。 이것을 형용해볼러서 수해(樹海)라고들부른다。 말하자면 삼림이라고 부르기는 너무도 크고보니 황송타는말이 수해가된것이다。 사람과말을합해 백여명"캬라반"은 가업는 나무바다속으로 아니 바다미트로잠항(潛航)을 하고잇는것이다。 나무바다의 편대잠항대 서투나마 갓가운표현이다。 하늘은물론 땅도보이지안는다。 간간히 나무가 지붕을 베질코 떨저주는햇볕은 일표모를 꽃일기에 바사가되여 지리한이길에 심심파적을 해볼빵 모다가 칙칙한 숲속에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말업시 자욱만옴긴다。 풀속을헤치고 실오리처럼 다라난 길바닥을 일치안흐려고。

바로 숭지 강산을구경한다고망원경을 이마에대고 먼산 갓가운 봉오리를 손가락질 헤가며 희희락락 노다 거리며 간다는 속된 등산풍속은 이 산중에서는 금물이다 어데까지라도 업숙하게 어데까지 라도 경건하게 절바닥만 내려다 보고 수도자(修道者)의 거룸그대로 조용조용 발자옥만 옴겨놋는것이다。 안그러라도 그럴수업는 이길이매 이것도 령악을 찻는자 반드시 적혀야될 그도리를 지리(地理)가 먼저 배포를 해논것으로밧게 볼수업다。

잇다금 압말이서매 뒷말도가리 머몰고 압사람따라 후행이 주저함은 열두번넘어 이산울오르내려 발바닥에 눈이 부럿다고 일르는 맨아페 길잡이로선 김서방도 풀속에 살아진 길을 찻기에 한참식 발거름을 멈추는것이다。

○……○

이러케 거러가는동에도 오르막길과 강파른곳이 업는것은 해발구천척 동산으로는 이상하게도 보이지마는 오르막보담은 고개마루 보담도 못지안케 성화를 부리는것은 너머진나무를 타넘기와 풀안뵈는 진흙을 건느는것이다。

저대로나서 저대로 자라 제대로 말라 저대로 너머진 고목이 섯낭개비를 푸려허든듯한것처럼 나무나무 사이사이 랑자하게 널려잇다。 이것이 열보에한개스무보에 두개 시늉마셍긴 질바닥을넘어 질울치듯 가로누엇다。 나무들은 뛰여넘고 높도안흔놈은 기여넘고 낫도높도안흔 놈은 기여올라 넘고보니 나무마다고개요 동치마다능성이라 천평(天坪) 천리길이 평편라고 하지마는 「알프손」논잔흔 험로이다。

너머진 나무등치에 못지안흔 고통은 도진펄이다。

실리이실리 눈다고보아도 흙한개차즐수업고 물읏기가저를 풀작한개업는곳이다 풀은 제대로 몰려 내도못되고 웅얘이도못되너 진펄이되고마는것이다 물이라도거든로보이면 미리 질작코 겨조를 채리겟지마는 깁겁이소순 풀밋바다에 숨어드는놈이라 풀속이를 징검다리삼아 조심조심건너가다가 잘못빠지면 허리통떼는놈이 백두산안간다면 못찰을 고난이다。

숨이막히도록한숨통에자면 그진펄이나오고 그진펄을 간신히건느면 그숨이뒤도라나와 비야오른 안흐는 아령두리는 흙투성이가되여 성지를찻저가는 고행자의풍모가 제절로 방불해지는것이다。 (밀림속으로드려가는 일행)

銀幕우에現映될 白頭聖嶽의雄姿

演士七名의探險報告講演

廿七日夜本社大講堂에서

본사에서 막대한비용과 허다한 노력을 희생해가면서 주최한 조선유사이래의 획기적장거인 백두산탐험단(白頭山探險團)이 지난일헤날 서울을 떠난지 열이틀만인 지난십팔일에 예그이상의 커다란수확을 거두어가지고 무사히 도라오지도 벌서 일순(一旬)――이민족의 성지(聖地)의 순례긔(巡禮記)는 방금본지에 매일가려 본사주필 서춘(徐椿)、사회부장 리상호(李相昊)량씨가 이모저모로 그림그리여 소개해내려오는바 본사에서는 열번글로보는것이 한번직접듯는것만 갓지못하고「백번말로듯는것이 한번실사(實寫)를보는이만못하다」는뜻으로 오는 이십칠일 오후일곱시를 긔하여본사대강당에서 백두산 탐험영화및그보고 강연회(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會)를 열어서우리민천하 독자여러분에게 이바지하기로되엿다。

이활동사진은 본사에서 만흔비용을애끼지안코 가진 곤난을격거가면서 촬영한 그야말로 생긔가 펄펄뛰는 산신문긔사로서 이것이 여러분의 눈아페 비추어나타나는 때에 여러분은 모름지이여러분자신이 실지로 백두산을탐험하는거나 마찬가지의느낌과 아울려 머리를수기고야말것으로 밋는바이다。

따라서 보고강연회는 주최자인 본사측으로 주필서춘씨와사회부장 리상호씨와 단원편으로는 동물학자 김병하(金炳河)와 곤충학자 장형두(張亨斗)、력사가 사공환(司空桓)、지리학자 강재호(姜在鎬)、의학박사 신성우(申聖雨)씨등조선의 학계를 망라한 여러대가들이 각각 보고 몸소 체험한바를 그대로 보고 하게될것이다。

우리사의 탐험은최초도 조선서처음이엿스려니와 따라서 이활동사진의 영사와 및 보고강연회도 전날에 업서슨 모임이니만치 일반의 긔대가 커질것인동시에 꼿업는 갈채를바들것으로 자부하는바이다。

七十老翁自殺

【遮湖】지난 이십이일 정오경에 차호보통학교(遮湖普通學校)압산 송림속에 어떤 로인의목매여 죽은 시체를 발견하여 일시는 소동을 이르켯는데 이제 조사한바에 의하면 자살의 주인공은 상차호리(上遮湖里)에 우거하는 장세현(張世鉉)(七〇)이라는 로인이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업고 홀홀으로 남북에 류리하며 도라다니다가 나이 늙어가매 외롭고 처량한 신세를 의탁할 곳을 차저 전긔 주소 자긔의 아우되는 장윤옥(張允玉)씨집에 와서 우거하고 잇섯는데 그 아우는 신병으로 지난 오월에 세상을 떠나고 쳐하야 수삭안으로 그아우의 손자되는 두소년도 세상을 떠나매 슬픔과 괴로움이 일시에 복바처서 날이 갈사록 악착한 세상을 비관하여 오던바 마침내 자살한것이라 한다

信川邑農民學院 卅萬圓財團完成

當局에昇格認可申請

設立者李繼天氏一門의壯擧

황해도 신천읍(信川邑)에잇는남자 중등학교 농민학원(農民學院)은현교장으로잇는 리계천(李繼天)씨의 집안에서 설립하야이십만원재단법인이 설립되엿던것인데 동씨는 이학교의 일층확충을 도모하야 이번에 신천군 북부면(信川郡北部面)에잇는 자긔 소유토지 시가칠천보 시가약십만원어치와 현금오천원을 출자하고 그의삼촌되는 리수국(李秀國)씨가 또한 현금이만오천원을 내여서 현재까지의 재단의 정리를 하야 이에 삼십만원의 재단법인을 완성하는동시에 여태까지 중등과삼학년제도로잇서던것을 오학년제도로충격하기로하여 지난십삼일 당국에아울러 그허가신청을 하엿다 이로서 이농민학원은 그압날이 더욱빗나게되엿다한다 (사진은 리계천씨)

水亂一過後幾日에 또다시大雨警報!

颱風掩襲憂慮도잇다

장마가 거든지 몃칠이 못되야 또다시 이삼일전부터 날세가흐리기 시작하더니 이십사일밤부터 중부이남조선에 비가 또다시내리기 시작하야 전번에 수해가심햇든 전주(全州)지방에는 팔십미리의 호우가 쏘다저서전번수해에집을 일코 주접할곳이 업는리재민들의 가슴을 또다시 놀내게하고 경성지방에도 십팔미리나 내리여 감수되엿든 한강물은 또다시붓기시작하야 연안주민들을 전전긍긍케하고잇다

비는아직도 오락가락하는데 측후소원의말을들어보면 칠배오십이미리의 저긔압이 북해도의동해우에잇고 일본해와 일본의남동해우에 칠배오십구미리의 고긔압이잇서 긔압관계로 중부조선에는 비가오는데 비는 이십륙일까지 계속될모양으로 한강물은 아직은 그다지 염려 될정도는 아니나 얼마간 더불을것갓다하며 태풍은 충승현(沖繩縣)부근에 잇서 북서로 진행중이나 북동으로 전향할지도 알수업는데 만약북동으로 전향하게되면 조선에도 상당한 래풍이 업슬는지도 모른겟다고 한다

未成年者喫煙、飮酒 禁止法實施促進

朝鮮代表로 宋相錫牧師出席

부내종로 이정목에잇는 미성년자긔연음주 금지법실시 촉성회(未成年者喫煙飮酒禁止法實施促成會)총무겸 조선그독교 절제운동회총무인 조선야소교 장로회(朝鮮耶蘇敎長老會)목사 송상석(宋相錫)씨는 오는이십칠일부터 삼십일까지 사흘동안 동경일본청년회관(日本靑年會館)에서열리게된 동양금주대회(東洋禁酒大會)에조선대표로 출석코저 이십오일오후 세시발열차로 동경을향하야 경성역을떠낫다 이대회는 일본국민금주동맹(日本國民禁酒同盟)등 이십여단체의 공동주최로서 중화민국 및 만주 비률빈(比律賓)조선 남양 화태 북해도 대만등 전동양각지의 금주단체대표자가 모히여 금주운동에관한 사항을토의할터이라는데 송상석씨는조선대표로서 조선안의 금주운동상황과및 상세을 설명하는외에하로밧비 조선에도 미성년자긔연음주금지법을 실시하도록 당국자에게 진정할터이라한다

平壤各配達夫 集金橫領激增

【平壤】최근 평양서사법계에는 고용인이나 점원의 집금횡령사건으로 경찰에 미러맛기는 사건이 칙신증가햇다

가장만흔것은 음식점의배달 문밧구잡화상 기타의대소상점의 점원들로 횡령햇다는금액도 오백원으로부터 이삼십원정도이고 백원을넘는것은 극히드믈다

이런사건을 만들기 까지에는 점주나 고주의 불찰이만코 또적은 급료로 우마가티 부려먹고잇서 자연히 가족의 생활문제로도 주인의금전을 써버리게되면 무자비하고 몰인정스럽게도 경찰에내여맛기는데 이것은 점주나 고주되자들의 주의할사건으로 평소에 감독을엄하고 급료도 좀여유잇게주워 사람가튼대우를하여 죄인을만들지안토록해야할것이라고 한다

大邱서온少年 京城驛서被捉

대구부동성정(大邱府東城町)오십이번지 로성용(盧聖容)(一六)이라는학생은 이십오일오전열한시경에 자긔 할아버지의 돈백원을 몰래가지고 경성으로 떠낫는데 동일오후일곱시 이십오분 경성역에 도착하는것을 수배를 밧고잇던 시내본정서원이 보호검속하엿다

自動車와衝突 頭部를重傷

十七歲된通信社使童

이십오일 오후두시오십분경에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오십번지에머서 시내영정(榮町)십팔번지 룡산(龍山)택시 최선용(崔善用)(二)이가 운전하는 경(京)구천이백십오호자동차에 시내 충신정(忠信町)구십삼번지사는 동맹통신사(同盟通信社)배달부 홍순열(洪淳烈)(一七)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충돌되여 머리가 깨여저서 곳 시내의전(醫專)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출혈이 심하야 전치 반개월가량의 중상이라고 한다

未成年者印章盜用 四萬三千圓借用

鐵原高富者의土地를싸고도는 不正事實最近綻露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인장을 몰래 사용하야 문서를 작성하여가지고 미성년자의 소유토지를 저당권등긔(抵當權登記)를내여서 사만삼천원의 대금을 꾸어써버린 놀라운 사실이 탈로되여 피해자의 친족은 수일전에 경성검사국에 드되여 고소를 제긔하엿다 사건은 강원도 철원군(鐵原郡)내에사는 재산가로 일흠난 고희원(高熙源)군에 관한 것으로 그진상을 알아보면 이러하다

강원도철원군동송면오덕리(東松面五德里)일백사십삼번지 소재의 논일천칠백삼십평과 일백륙십칠평(坪)의 토지는 미성년자 고희원군의 조부인 죽은고계하(高啓河)씨의 소유이엿는데 고계하씨가 살아잇슬때 대정십사년구월이십사일에 형식상매매(形式上賣買)로써 소유권이전등긔(所有權移轉登記)를 하고서철원읍관전리(官田里)일백사십오번지의사호에 사는 윤병주(尹秉柱)씨에게 신탁(信託)하엿는데 윤씨는그토지를 소화삼년시월오일에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에 조선식산은행(殖産銀行)에 대하야 근저당권설정(根抵當權設定)의 등긔를하고서돈삼만원을차용하엿다

그뒤 그사실이 발각되여 드되여 고씨집안에 소동이 이러나게되엿스므로 윤씨는 형사문제로 진전할가 우려하야 그로지를 고계하씨의 유산 상속인(遺産相續人)인 미성년자 고희원군에게 반환하고저 소화륙년오월이십사일에 형식상매매로써 소유권이전의 가등긔(假登記)를 하고서 전자의 신탁계약을 해제한뒤 윤씨는 식산은행의 빗을 갑하버렷다

그뒤 고희원군의 후견인(後見人) 오청(吳淸)씨는 윤씨에게 대하야 그가등긔를 소유권이전의 본등긔수속(本登記手續)을하여달라고 루차 요구하엿스나윤씨는 이피게 저피게로 그것을 리행하지안코잇다가 철원읍중리(中里)칠번지 대서인 리완호(李完鎬)씨와 상의하야 미성년자 고희원군의 인장을 부정히사용하야 소화구년 시월이십구일에 철원지청에 전자의 가등긔를 말소하고 그이튼날인 삼십일에 윤씨의 명의로 철원지청에 저당권설정의 등긔를 하고서 조선신탁회사에 대하야 사만삼천원의 대금을 무난히 차용하엿다한다

그동안 이사실은 비밀에 부치여 잇섯든것인데 그돈을 갑지못햇스므로 맘미암아요지음에 드되여전부의 탄로가된것이라한다

生家便의必要로 信託하야借用한것

곳返償하야原狀恢復시킬작정 尹秉柱氏談

법률상으로는 어그러진일이엿슬는지도 몰음니다마는 고희원의 소유토지를 내명의로 옴겨가지고 신탁회사에 잡히고 돈사만삼천원을 차용하게되엿것은 내개인이 쓸라고 한것이 아니고 그때에 고희원의 생부(生父) 고중권(高重權)씨가 서울리모(李某)와의 소송관계로 법에 구속되여 일년반동안이나 가처여잇섯기 때문에 그일을바로잡자면 그만한돈이 필요하엿스므로 뒤스처리는 내가담당할 요량하고 잡혀서돈을쓴것입니다 나도상당한재산이잇는터이므로 그돈을 가파주고 원상을회복시킬 생각이올시다

勿論違法이나 事情이딱햇소

李司法書士談

물론법적으로는 어그러지는일인줄로알앗스나 그당시의형편이 그리하지안흘수업는 딱한처지엿스므로 뒤에닥처오는일은가오하고 일체의서류를 작성하여준것입니다

尹氏所有로 알고서貸金

朝鮮信託社長談

우리회사에서는 고희원소유의 토지인줄로는 전연 몰랏고 윤병주의 소유인것으로 알고서 토지가격까지 한뒤에 돈을뀌여준것입니다 윤씨가 상당한 재산가이라한즉 우리회사에서는 하등손해볼우려는업겟지요

두번씩속고나니 囊中에는二十錢

할수업서西大門署에哀訴한 어수룩한시골靑年

이십오일 저녁에 젊은 사나히 한명이 서대문 경찰서에 울면서 차저가서 구호를 청하엿다 조사해본 결과 그는 전북 완주군 조천면 화전리 (完州郡助村面花田里)사는 김병호(金炳俊)이라는 스물다섯살 먹은 농촌청년으로 지난 이십일 오후에 전주(全州) 장에 도야지를살려고 돈 십오원을 가지고 갓는데 알지도 못하는 젊은남자한명이 나타나서 자긔와 가티 서울로 가면 리익만히 생기는 장사가 잇다고 달콤한말로 꼬이므로 그말을 듯고 이십사일에 서울에 올라왓더니 테리고온 그사나히는 장사할물건을 사가지고 올터이니 돈오원을 내라하므로 돈오원을 주엇더니 바늘 열쌈을 사가지고와서 손에 쥐여 주고서는 잠간기다리고 잇스라 하고는 고만 어데론지 도망해버렷다한다

그래서 아모리기다려도 도라오지안흠으로 동서남북도 분간할수업는 그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십오일에는 서대문경찰서부근에서 하도딱해서 울고잇섯더니 또젊은 사나히한명이 나타나서 사정을 듯고는 동정하는체하고 적십자병원 (赤十字病院)에 취직을 시켜준다나양복을 입어야겟슨즉 돈오원이십전을내면 양복한벌을사고 리력서를 써주마하므로 그말에 쫏차돈을 주엇더니 그남자역시 어데론지 도망해버렷다

그래서그는 주머니에 돈이십전밧게남지안햇스므로 고향으로 도라가려하여도 갈수업는 형편이라하야 보호를 청한것이라한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서는그의 고향으로 려비를 보내도록 조치하고 보호중이라한다

小兒에게私刑

감자밧主人蠻行

【平壤】감자밧에 드러가서 감자의 소원두어 감자멧개를 훔쳐내엿다고 비인도적"린치"를 가하여 소년으로 하야금 울구지와 고통을 맛게한 못쓸놈이 잇다

평양부외 재경리면 오동리(五洞里) 리용남(李用洙)(二)이란자는 십륙일오후다섯시경 동리 김봉기(金奉基)와오남팔(吳南八)(八)외장남치각(張南致)(六) 최유근(崔有根)(?)외두명이 자긔 감자밧 가운데 드러가 감자 다섯개를 땃다고 끄을고 가서 형언할수 업는 란타를 하여 두 소년이 전신에 부상을당하엿는데 그중에서도 나털은 좌우귀의 고막이터지고 중이염(中耳炎)이일어나 일개월이상을 치료해도 불구자를 면치못할만큼을 햇다

소화대동서에서는 가해자 리용남을 검거하여 취조한후 불일 범사령、폭행、상해범인으로 이십이일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 송국햇다

平北對岸各處에 武裝團出沒頻頻

鴨江沿岸을中心으로船舶襲擊、金品强奪

輯安縣臺上에는共軍이襲來

【新義州】최근 평북대안 일대에는 대부대의 공산군 반마군토벌 조선〇〇단등의 출현이빈번하야 살인방화 강탈 략거등을 감행하여 주민들은 사처로 피난하는일방 처처에서 관헌과의 교전하는 총소리가 들리어 인심이 자못 흉흉한데 이십이일 하로에도 비곳에나 공군반만군 마적등이 출현하야 교전을 하얏다한다

◇……반만군 왕봉각(王鳳閣)일파 삼백명과 조선〇〇단 문무경(文武卿)일파 팔십여명이합류하야 이십이일 오후열시이십분호강(渾江)하항의 예정인 환인현사첨자(桓仁縣沙尖子)상무조합(商務組合)단평선 백척을 습격하려고 행동을 개시하야 일대이백명은 관전현고려지 (寬甸縣高麗嶺)부근으로 일대 이백명은 즙안현고마령 (輯安縣古馬嶺)부근에 잠복하얏스나고려지부근에서는 목적을 달치못하고 선박항을 추격하야 이십삼일오전열한시 관전현하루하 (寬甸縣下露河)부근에 이르러 추격하야온 선박에 발포하얏는바 동선에 편승하엿든 〇〇군특신병과 회인현 치안대(治安隊)파견대병은 이에 연전하야 발포하며 하향중 즙안현고마령부근에 잠복중이든 일대가 동오후세시쯤 전라선박이 관전현대청구 (寬甸縣大川溝)이다룹(二股流)에 이르렀슬때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고 일방 추격하야오든 일대도 합류하야 대사격을 함으로 이에 응전하야 격퇴식히엿는데 치안대측의 피해는 다음과갓다한다

◆〇〇軍一名戰死 ◆治安隊二名重傷 ◆船夫三名重傷 ◆船一隻沈沒

◇……공산군 안정치(安政治)이하백여명이 즙안현제오구전심호(轉心湖)지방에 잠복하야 그곳 대상(臺上)을 습격하려고이십이일 오후여섯시 대상에 대습한것을 발견코 그곳 서장이 십오명의 경관이 국려 교전하얏스나 결국 패배를 당하고 전리 일단은 부락에 침입하야 강탈 방화들을 감행하는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유천(有川)지도관과 치안대 칠십명이 현지에 급행하얏다한다

『대하증』이잇스면 아해를못낫게됩니다

부인병에걸니면 반듯이 대하증이 생기게되나니중환이되시기전에권위잇는 대학병원에서 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부인병약『와세돈』로 곳치시면 자택에서도 병원치료와똑가튼치료가되야곳낫습니다

대하증은 오줌에 흔이나 [illegible] 하고 아래배가 거북하며 대하가 추출하는 [illegible] 증(냉증)이 내려서 [illegible] 으로 쓰라린 [illegible] 붐이 얼마나만습니까! 흔이 내자면 보통 [illegible] 거니하시고 무관심하 [illegible] 봄이 만노나 사실에 [illegible] 부인병때문에 그런것 [illegible] 로 이를 날이갈수록 [illegible] 옥 심하게되야 [illegible] 고마는것입니다

더구나 몸소리칠만콤 [illegible] 나게되며 살결이 거칠어지고 [illegible] 새이업서질뿐만아니라 [illegible]

병원에 못가시는분이라도 집에서 똑가튼 치료가되야 부인병이곳낫는『와세돈』

지금까지에는 흔이 부인병치료에 먹는약=환약, 가루약, 물약을 써왓스나 자궁속에 병균이들어가서 생긴부인병치료에 아모리 약을퍼붓듯이먹어도 직접그곳의 병회근의뿌리가 빠질이치가 잇겟습니까!

또한 의학상으로 직접넛는약이 유효하나 지금까지에는 우수한약효를가진것이적고 더구나 약물만들어드리게하야 오히려병세를 한개로 멋칠식쓰게하는가 대하를 심하게하는수가잇고 질내에서 잘녹지를안코 적거이가나오며 거문약물이나와서 속옷을 얼피게하야 실증을나게하는수가 [illegible]

와세돈은 한개를 꺼내 부에넛코 주무시면 조금도 불쾌한 감이 업시 곳 녹아버려서 약기운은 직접환부에작용하고 몸전신에 퍼저서 모든 부인병의증세를 곳 낫게하여줍니다

그러므로 속히 병고에서버서나십시려는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와세돈』로 치료하시사 근치의 깃븜을 어더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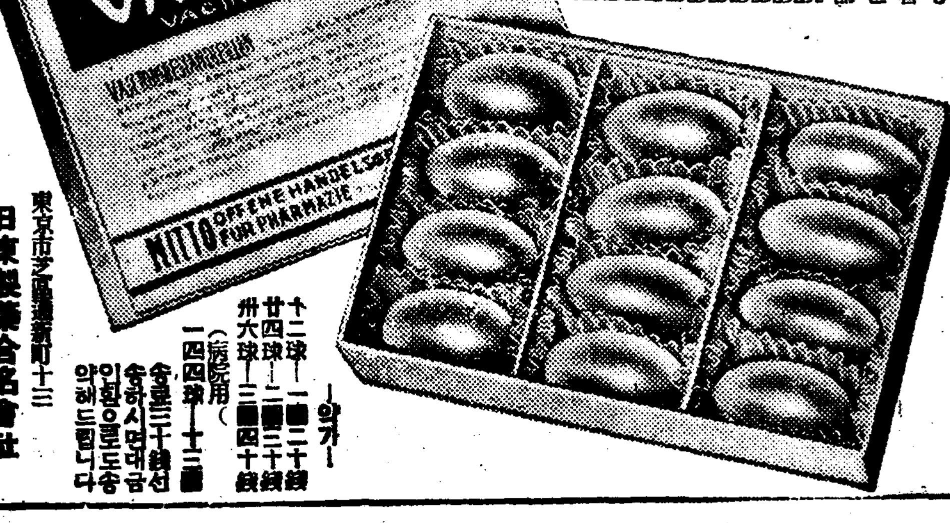
……◇……

조선국문으로 병세를 통지하시면 부인병자택치료서를 거저드리고 최선의방법을 알려드리며 본보독자우대로 송료자십전선송하시는분에게는 남어지 송료를 부담하야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림니다

와세돈은 [illegible] 병원에서 쓰게한것이 하나도업는 [illegible] 만흔患者를 구원하고잇는

東京帝大附屬病院 京都帝大附屬病院 九州帝大附屬病院 東北帝大附屬病院 長崎醫大附屬病院 日本醫大附屬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東京鐵道病院 大阪鐵道病院 名古屋鐵道病院 救世軍病院 東京聖路加病院 有名한病院一部

어느가정에도필요한 家庭衛生讀本 『女性의新生理學』을 통지하시면 거저드립니다



-약가- 十二球一圓二十錢 廿四球二圓三十錢 卅六球三圓四十錢 (病院用) 一四四球十二圓 송료三十錢 선송하시면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

京城 新井藥局、木村藥房 釜山 大黑南海堂 전조선약방에서판매합니다

V-6

三萬圓豫算으로 隣保館建設計畫

開城有志들이大發奮

【개성】개성(開城)유지들로서 삼만원의 기부금으로써 사회사업긔관으로 린보관(隣保館)을 건설코저 지난번에 총독부로부터 기부모집인가(認可)까지 나왓는데 사회 사업의 인식을 보급시키고저 오는 이십칠일에 개성부내 고려청년회관(高麗靑年會館)에서 민간유지 오백명을 모아노코 사회사업강연회를 열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 계속하야 이십팔일에는 개성부청 회의실에서 관민유력자의 좌담회를 열기로 되엿는데 경기도에서는 지방과(地方課)일야사회계주사(日野社會係主事)가 참석하고 경성부동부린보관(東部隣保館)장 리강혁(李康爀)씨도 참석하기로되엿다한다

府議立候補十八名

경성부회의원립후보자의 수효는 이십오일정오까지에 합계십팔명에 달하엿다 그리하야 영등포에 일명 중부에 여섯명 동부에 세명 서부에 두명의수효로 되여잇다 이십오일에 립후보한 사람은 다음의 두명이다

▲漢南町四八六 朴元信(三) (東部)

▲阿峴町二〇ノ三 車相賢(三) 阿峴郵便所長(西部)

進行中列車에서 失足하야落傷

이십사일 오전열한시 경성을떠나 북계(北溪)로가든 제오백십삼렬차가 한강리-수철리(漢江里-水鐵里)사이 경성기점 다섯「키로」될때미를부근을 지행하든중 부내보광정(普光町)백륙십륙번지 장남윤(張南尹)의 안해 성남종(成南鍾)(三)이라는 여자가 차문부터 실수해 떠러저서 머리와 음부에 중상을입엇고 혼도되여잇는것을 곳 철도병원으로 떼메여다가 응급수하는중이다

女電話事務員若干名을募集

경성중앙전화국에서는 번잡번망고까지에 교환국(交換局)을비롯하야 본국(本局)광화문분국(光化門分局)에여서자리(六席)룡산분국(龍山分局)에세자리(三席)를 더증치하야 리용자의편의를 도모하기로 되엿다 한다

이에 따라 전화사무원(電話事務員)을 약간명 모집하는중인데 자격은 년령만십구세이하의 조선녀자나 일본내지녀자로 조선녀자는 중등정도 학교졸업이상이면된다 그리고 시험과목은 상식(常識)국어(國語)작문(作文)등이며 원서는 이달그믐날까지 받는다한다

學生올림픽映畵會

경성학우영화회(學友映畵會)에서는 이십사일 오후두시에 부민관(府民館)에서 위원회(委員會)를 열고 「올림픽영화회」는다음과가튼 일정(日程)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엿다

▲초등학교는 구월오일오후에두차례

▲중등학교 남자생도에게는 구월칠일 팔일 구일오후에 네차례

▲중등학교 녀자생도에게는 구월 륙일 칠일 오후에 또차례로 관람시키기로하고

▲구월륙일부터 구월구일까지사일간은 매일 오후 일곱시삼십분부터 조선체육협회와 공동주최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되엿다

중등녀학생및 일반공개의 프로그람은 올림픽영화와 만화(漫畵)와 갑자원야구(甲子園野球)의 방송을 상연하기로 되엿다 중등남녀학생의입장료는 한명에 이번만은 십오전을 받기로 되엿다

가지각가지 데명의좀도적

東門署서一網捕盡

이십오일 시내동대문서 사법계에 붓잡혀온좀도적네명은 ▲시내종로(鍾路)륙정목 십일번지 윤영선(尹永善)(三)은 지난 이십일오후두시경에 시내 립정정(笠井町)사십이번지 김중제(金重濟)의 집에 침입하야 은수저다섯벌을 도적하엿다가 붓잡혓고 ▲시내효자정(孝子町)오십륙번지 무직김영래(金英來)(三)는지난이십사일 정오경에 시내창신정(昌信町)이백십륙번지 진흥려관(振興旅館)에 침입하야 현금십원을훔치다가 동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스며 ▲시내 제긔정(祭基町)일백삼십칠번지 사는변만중(卞萬仲)(三)이는 이십사일 정오경에서 시내청량정(淸凉町)삼십일번지 림업시험소(林業試驗所)에 침입하야 오배자(五倍子)를 도적해갓다가 붓잡혓고 ▲일정한 주소가업시 떠돌아다니는 김영기(金英基)(三)는 이십사일 오후한시경에 시내청량정(淸凉町)박광순(朴光淳)의집에 침입하야 현금 십이원팔십전을 도적하엿다가 역시동대문서형사에게 붓들려왓다

膨脹京城街頭變遷記

朝夕이거리의壯觀은 "靑春朝鮮"의猛行進

늠늠하다! 二世일꾼들 기운찬往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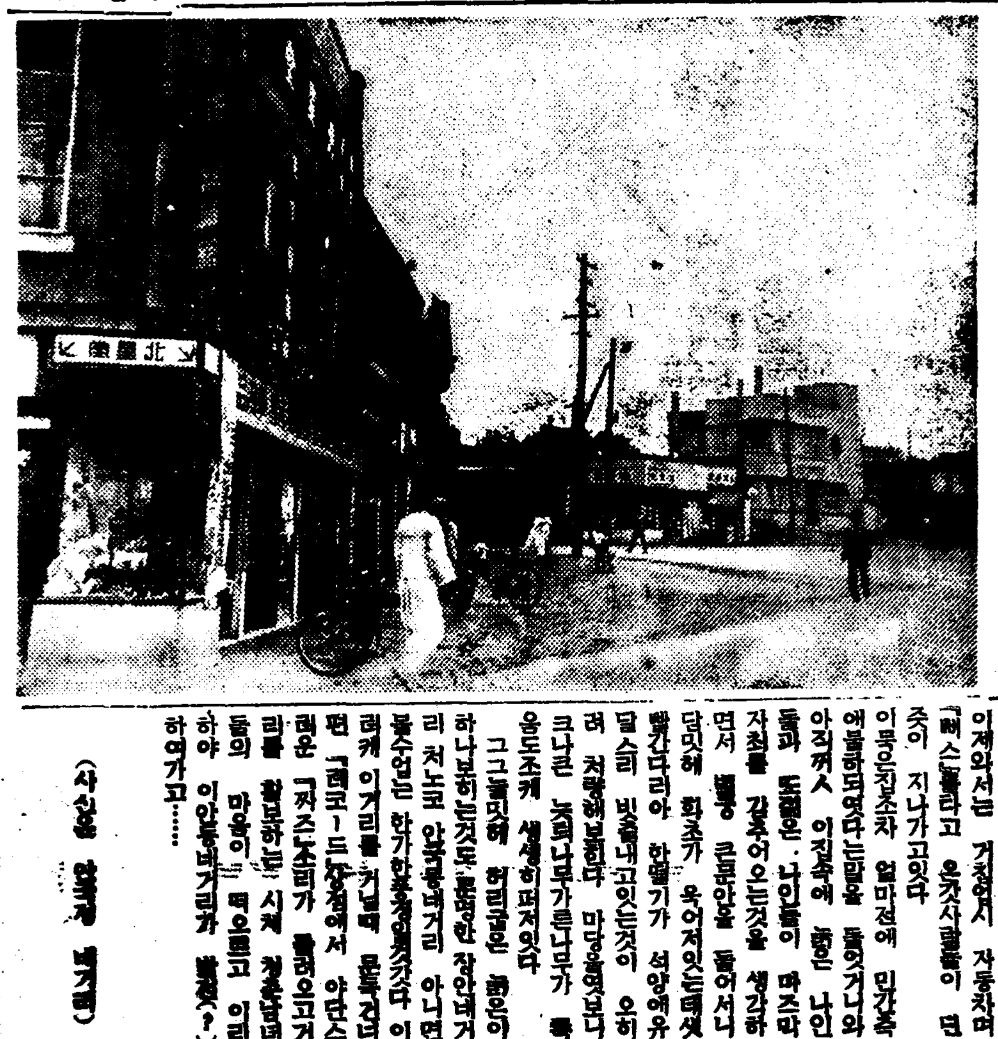
別宮도헐려學校가된다

安國町篇

아츰을 일즉이니먹고 학생들이 동교할시간쯤해서 안국정(安國町) 네거리로나서보라 서울의어느거리 어느골목보다 생생한그림자가 옹지기고잇슴을 늣끼리라 그야이네거리에도 눈물이짐흘러지는 추움들이 지나가지안을리야 업겟지만 팔팔하고 생생한 남녀중학생들의 동교하는모양이야말로 이네거리를 멈혀눌러잇는보경물이다 사십오오 짝을지어 재잘재잘끄고 며고 학교로거려가는 그들의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하고 깃붐이넘치잇다 화동(花洞)쪽으로 제일고보(第一高普)한성상업(漢城商業)의 교복이 몰려가고 수송동(壽松洞)쪽으로 향하야는 중동학교(中東學校)의 교모가 련달어가고 제동(齋洞)쪽으로부터는 휘문(徽文)이며중앙(中央)이며 대동상업(大東商業)의제복제모가 어울려간다 그사이에 녀자고보(女子高普)숙명녀고(淑明女高)의 건강한 그리고도 아릿따운 소녀들의 얼골들이섞겨간다 남학생의 체격들이 꿋꿋도하여보히며 녀학생의 몸맵씨들이 고르고도 아름답다 아직세상의 거친바람을 맛지안흔 그들의 심정에는 순결한 붉은피가 용소슴치고잇고 아직께여저보지안흔 그들의 머리속에서 꾸는꿈은 높흘고도 빗나서잇다 아츰의 선선한 해빛을바드면서 이리저리 반비빗비 옹지기고잇는 그들젊은 소년소녀의 다리가 어지려운것만이 보히는 이거리안국정 네거리학생들의물결이굽틀 거리고잇는 누구나이더볼수잇슬꺼나 아츰에 반운거룸이라서 이소년소녀들의 그림자에서 무슨긴는뜻과 큰힘춤을 생각내지못하는 분이거던 해게렴때선돌한 바람쏘이면서 비교적왕래가 적어진때의 이네거리엘한번틀 어서보라 그리고나도소년때중학교그시절에는 이곡지를 아층저녁으로 밟이닳도록 단엿것만도 그때의나에게는 꿈도잇고 야심도잇고 피도잇고 기운도잇섯것만도하고 고요한 회고에잠겨나볼것이다 이런생각 저런생각에 잠겨가며 가만가만거름을 옮기랴면는 네거리한쪽엽헤 아직도 단청(丹靑)빗이 남홍큰기와집이잇스니 이것이별궁(別宮)이오 그대문압헤 조고마한 비석을발견할것이다 대소인원하마비(大小人員下馬碑)라고새여잇다그러고보니 모든사람이말과 가마를 내려서 가지안흐면 안되엿던것이로구나 그러면 이별궁앞이엿만 이제와서는 거침업시 자동차며 「뻐스」들라고 오갓사람들이 던죽이 지나가고잇다

이몽은집조차 얼마전에 민간측에불하되엿다는말을 들엇거니와 아직꺼서 이집속에 늙은 나인들과 도련은 나인들이 마즈막 자최를 감추어오는것을 생각하면서 별궁 큰문안을 들어서니 다맛헤 회초가 욱어저잇는데엇빨긴다리아 한떨기가 서양에유달스리 빛을내고잇는것이 오히려 처량해보힌다 마당엇보니 크나큰 늙은나무가른나무가 륵울도조케 섀생히피져잇다

그그늘밋헤 허러굴은 늙은이 하나보히는것도 돌연한 상안네거리 저노코 안국동네거리 아니면 볼수업는 한가한풍경인것이다 이러케 이거리를 거닐때 문득건너편 「레코-드」상점에서 야단스러운 「짜즈」소리가 들려오고거리를 활보하는 「시체」청춘남녀들의 마음이 떠오르고 이리하야 이안국네거리가 밝엇(？)하여가고……



(사진은 안국정 네거리)

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大會

本社主催 白頭山探險團은 滿天下讀者의 聲援과 期待下에 本來의 壯圖를 遂成하야 豫期以上의 成績을 거두엇습니다 이제 本社는 그經過와 收穫을 讀者의 아페 報告할 義務를 늣기고 아울러 本社映畵班에 依하야 撮影한 聖山의 雄姿를 實景 그대로 紹介하기 爲하야 이제 白頭山探險報告講演、映畵會를 開催하는 바입니다

時日 八月二十七日午後七時

場所 本社大講堂

演士 金秉河、張亨斗、司空桓 姜在鎬、申聖雨、徐椿 李相昊

朝鮮日報社

徽文對仁泳 對抗水上競技

月尾島풀에서擧行

【仁川】인천수영구락부(仁川水泳俱樂部)주최의 휘문(徽文)대인영(仁泳)수상대항전은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 월미도조탕『풀』에서거행하엿는바 당일관중은 정각전부터 무려수천여명이 운집한가운데 대성황리에 경기는종료하엿는데 경기중특기할것은 휘문의 군이 삼백미터자유형에서 조선학생기록을 국사경자로 휘문군이 승리하얏다는데 중등의기록중에 사백미자유형에 김석영(金石泳)군과 홍려인(洪麗仁)양군이 조선학생기록을 돌파하야 이채를나이엇다는데 성적은다음과가다

【二百米繼泳(릴레)】1 徽文四分二〇秒四 2 仁泳四分二一秒四 得點徽文五 仁泳○

【二百米背泳】1 秋成求(徽文)三分三〇秒F 2 李慶洪(徽文)三分三六秒F 得點徽文九 仁泳○

【百米自由型】1洪麗仁(仁泳)一分一三秒七 2金石泳(仁泳)一分一三秒九 3秋成求(徽文)一分一四秒八 得點 仁泳六 徽文一

【二百米平泳】1李恩生(徽文)三分一八秒三 2金在玉(徽文)三分二六秒七 3李順奭(仁泳) 得點 徽文六 仁泳一

【八百米自由型】1金石泳(仁泳)六分二〇秒二 2洪麗仁(仁泳)六分三秒F(以上朝鮮學生新記錄) 3朴性用(徽文)六分四四秒三 得點 仁泳六 徽文一

【二百米리레】1仁泳릴二分一五秒五 2徽文릴二分二二秒F 仁泳三 徽文○

【二百米自由型】1洪麗仁(仁泳)二分五二秒F 2金仁洙(仁泳)三分三三秒三 3朴性用(徽文)三分五秒三 得點 徽文一 仁泳六

【百米背泳】1秋成求(徽文)一分三三秒F 2李斌淳(徽文)一分三六秒八 3劉鳳在(仁泳)一分四〇秒F 得點、徽文六 仁泳一

【八百米自由型】1金石泳(仁泳)一三分二六秒F 2秋成求(徽文)一三分五一秒三 3朴性用(徽文)一四分三三秒三 徽文三 仁泳四

【四百米 平泳】1李恩生(徽文)七分二一秒三 2朴亨手(徽)七分一四秒三 3金在玉(徽文)七分二五秒 得點 徽文七 仁泳○

【八百米 릴레】1仁泳 一二分二五秒三 得點仁泳三 徽文○

◆總得點 徽文三四點 仁泳三○點

匈牙利遠征記

【4】延專蹴球部主將 康殷鉉

「류나洞」는 如前히 흐르고잇다 「리뷰하우스」에서 떠드는소리가 「류나洞」를 건너 房안으로 새드러 온다 노픈 腰臺에기피누어 언제 잠이 드럿든지! 「키사써니」(匈牙利語、시악씨) 힌모자에다 검은 비닭이털을 꼬진 「키사써니」! 꿈인지 아까 「안골파」에서 만난 「키사써니」가 天井우에서 그림이 되드니 나려온다 幻像이 아닌가? 「一等코」를 주고 가리 人形을 사고 木馬를 가리탄 「키사써니」! 서로 일홈도 알려줄 사이도 업시 하로를 그대로 보냇다 치운바람이 불고 츄라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게 「류나」河에서 드려오는 여름바람은 나의 疲勞를 흔든다

「류나」河上에 夏夜를 실고 섬으로 가는 無數한 배들은 아침에도 잇고 밤에도 잇다 「파부리카」의 料理를 먹어다 우리고추장 찌개와가튼 辛味의 料理로서 잘양념한 刺戟性잇는料理다 이곳의 「굴라쉬」는 참맛이잇섯다 匈牙利의 ……「메스」로서 市街와寺院을 구경하고 漁夫의 寨壤안에잇는 마리아彫刻像、細細한 建築物과 手工藝品、壁畵(모사익)들을 보고 中世紀에잇서 歐羅巴의宗敎의힘이 얼마나偉大하엿다는것을 알수잇섯다

「크린도스·헐-에」(禮拜式擧行하는殿)에드러가 仔細한 說明을 드럿다 여기에서 나는 神聖羅馬帝國 그리고 十字軍의 侵入等을 聯想하면서 中世紀의 壁畵를더듬어 그우에 거닐수잇섯다 그밧게 아틀라유트카(市街)를 지나면서 도한 中古建物을 만히볼수가잇섯다 이옥고우리는 「류나」河를沿하야 도라와 將次 午前에잇슬 「께임」을 爲하야休息과 緊張을 못하게되엿다 듯건대、匈牙利올림픽蹴球팀은 이번에 外國올림픽팀과 對戰한그結果를보아 올림픽參加를 決定한다고한다

이날은 日曜日이엇슴으로 伯林과가티 「부다·페스트」도 一齊히 休業이다 商店은 勿論이요 工場煙突에도 한줄기의煙氣조차 볼수업다 이날께임은 「부다」에 잇는 以前五個國國際學生陸上大會를 擧行하든곳에서 열게되엇다 蹴球場으로서의 完全한設備는 가추지못하엿스나 그런대로 될만하엿다 歐羅巴의蹴球는 伊太利와、벨칙、沿岸小諸國과 佛蘭西를除外하고서는 全部가 우리蹴球「레벨」보다 五、六個年이나 떠러저잇다고생각된다 卽匈牙利와의께임은 第一軍과 第二軍(匈牙利올림픽候補)과싸워 「스코어」는 前者를四十一對十五、後者를 卅二對廿八로 이겻다 「스코어」는 問題가아니다 完全한技術로서 「께임」을하지못하엿다. 粗暴한匈牙利팀에게對하야서는 손을 대수가업섯다

그대로 께임을 進行한것은 匈牙利의 技術은 熟達치못하나 眼意업는 熱熱한 戰意를 보여주엇기때문이다 果然役員과 選手들은 其後우리에게와서『께임』에잇서『와일드』한데 對하야 遺憾의뜻을 表하엿다 이날李性求氏와 張利鎭君은 모다잘『께임』을 遊覽하엿는데 그中에도 李性求氏의『점프·플레이』는 참으로 눈부시게빗낫다

이날日本팀과의 對戰에잇서 多幸이 어든바가잇섯든지 그들은 마침내올림픽出戰을 決定하게되엇다第一理由는 選手派遣 財政問題가 解決되엇기때문이다。

오늘밤은自由다。『부다페스트』에 잇는 모든것을 마음대로 吸收하여볼라 고하엿다 그러나『부다페스트』는『류나』洞그것이요『윈』에서어든 雰圍氣는 全然볼수업섯다 一時的歡樂場이요 旅行客이 만흔곳이요 一種의 避暑地에지나지못하는곳이라고밧게는 생각되지안헛다 얼마를잇도록 李性求氏와 主將인 田中氏와함께『라코체이유다칸』에잇는『파빌론』이라는『카바레』에 드러가『집씨』의 舞踏과 匈牙利國有의「딴스」ー를 求景하엿다 有名한「부다페스트」의 名物은 바빠서 볼수업섯다 中世紀의有名한 建物을 照明시켜 不夜城을 이룬 夜景속에서는 華麗히 匈牙利「마—야」族들에 감추어잇는 무거운 힘과 柴高한자랑을 차저볼수업섯다 「호텔·메쵸스트」市內에잇는 大浴水浴場은 「부다페스트」에서본 第一큰板場이다 하여튼 바다업는이匈牙利에서 四五千名의 浴客들이 이「호텔」에 投宿하면서 한여름을 지낸다한다。

七月廿七日! 午前七時二分。 이날로「부다페스트」를떠나는날이다 이번의 路程에는「코-스」를좀달리하야「윈」을經由하지안코「까랑다ー」(匈牙利와 체코國境)에서 그날午前七時에汽車를 乘換하엿다 午後三時半에 「뿌-민」(체코와 獨逸國境)에서 다시가려다고 伯林까지 바로왓다 伯林에도라오니 올림픽을爲한裝飾!은 참으로아니 놀랄수업다 올림픽旗! 하켄크로이츠(卍)旗! 萬國旗等等……旗로서 밤빗伯林을 휘차버렷다 「히틀러」「히틀러」올림픽村內 「캬바레」「카페」商店을 비롯하야 집집마다 걸려잇는「히틀러」의肖像을 보지안흘수가업섯다 올림픽大會의 開會도數日內로臨迫하얏다 그런대 蹴球에잇서서는異常하게도東洋의 覇者인 中國과 日本이 第一回戰에서對戰케되엿다 어듸까지싸와볼것인가? 中國과 日本은 前日 極東올림픽大會에잇서서 日本이 中國한테 「그-ㄹ」「스코어」로 敗退한적이 잇섯다 그러나 올림픽을 好機로 이번에는 復讐戰이 될것갓다 우리三人은 단지 自己의 힘으로서 싸울뿐이다 最善이 다해질는지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 우리의 자랑 한가지를 보일 뿐이다 (此編完了)

受信人모르는書信

七月에만一千八百通

艶書와犯罪者의聯絡에太半

경성체신분장국(遞信分掌局)관내에서는 수취인(受取人)에게배달할수업고 발송인(發送人)에게돌려보낼수도 업는우편물이 무려정다한다 그가운데에서 엽서와편지가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잇는데 지난 칠월한달동안의 총계만이 일천팔백여통에나달하엿다한다

이가운데에는 수취인의 주소가 분명치못한것이 가장 만코 그다음으로는 정명(町名)이나 리명(里名)만 긔재하고 정목(丁目)이나 번지등을 긔재하지안흔것이 만흐며 이밧게는 천연상태편의 일홈이 업는것과 도저히 글씨체가 알기 어려운것과 흐른 옮겨간곳이 불명한것등이 만타

이런 배달할수업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도로 돌려보내야할터인데그발신인의 주소 씨명이 적혀잇지 안키때문에 돌려보낼수도업시 일정한 긔한동안 보관하엿다가 폐휴지로 태워버리게 된다한다 이외가티 래버리는 편지가운데는 사랑하는남녀사이에 남의 눈을 피하고저 발신인의 주소씨명을 쓰지안흔 정열에 끌는 련애편지도 잇고 범죄자가 동류끼리 비밀련락을 취하기 위하야 일부러 발신자의 주소성명을 쓰지안흔것도잇는 모양이라한다

A마라손會

來廿九日에擧行

서울陸聯主催의 第十七回A마라손會는 來二十九日午後五時부터 光化通네거리를 出發點으로 漢江人道橋北端까지의 約八哩往復코-스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希望者는 當日出發前까지 參加金十錢을添付하야 主催側에申込하기를바란다고한다

日米佛對抗陸上에 米國依然首位

【巴里廿三日發同盟】日、米、佛對抗陸上競技會는 二十三日巴里「코롬부」競技場에서 約一萬二千의觀衆이 모힌가운데 擧行되엿바 陸上王國의 米國은依然强하야總得點百三十一點을 獲得하엿스며 日本은 佛國과始終接戰을 演하야 겨우二分之一의差로辛勝하엿다

1、米國 一三一點五

2、日本 八二點五

3、佛國 八二點○

早大排球團來征

滿洲遠征中이든 早大排球部는歸校途中、京城에 來征케되여今廿六日 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코-트에서 遞信、鐵道兩軍과 對戰케되엿다

夏の下痢にアルシリン錠

여름 泄瀉에 아루시린錠

차게자서생긴泄瀉
食餌性泄瀉
細菌性泄瀉
(腸窒扶斯赤痢等)

殺菌力이엇는 腸內毒素를 吸着解消한다

泄瀉中止劑

【泄瀉】中止劑로서 次硝酸蒼鉛劑가一般으로 繁用되여잇지만 腸粘膜과細菌에 히 種種의缺點이잇다、卽……

1、腹壁에 沈澱物이르킬念慮가잇다

2、腸內容의醱酵가 甚할때에使用하면 有害한亞硝酸蒼鉛을醱生함

3、持續하야使用하면 後作用으로서 頑固한便秘를 이르키는일이잇다。

吸著作用의妙味

【아루】시린錠은藥性上所謂吸著劑로서從來의泄瀉먹는藥과가티 單純한 腸管蠕動運動의抑制와 收斂만을 主作用으로하는것과 달라서 吸著作用에依하야 泄瀉를 誘發하는 腸內의 催炎性物質과거티 有害物質을 그微細한 아루시린分子로 吸著解毒하고 또腸壁을 保護하는 特性이잇다、

即 아루시린錠에依할때는 各種의泄瀉는 極히合理的으로 治療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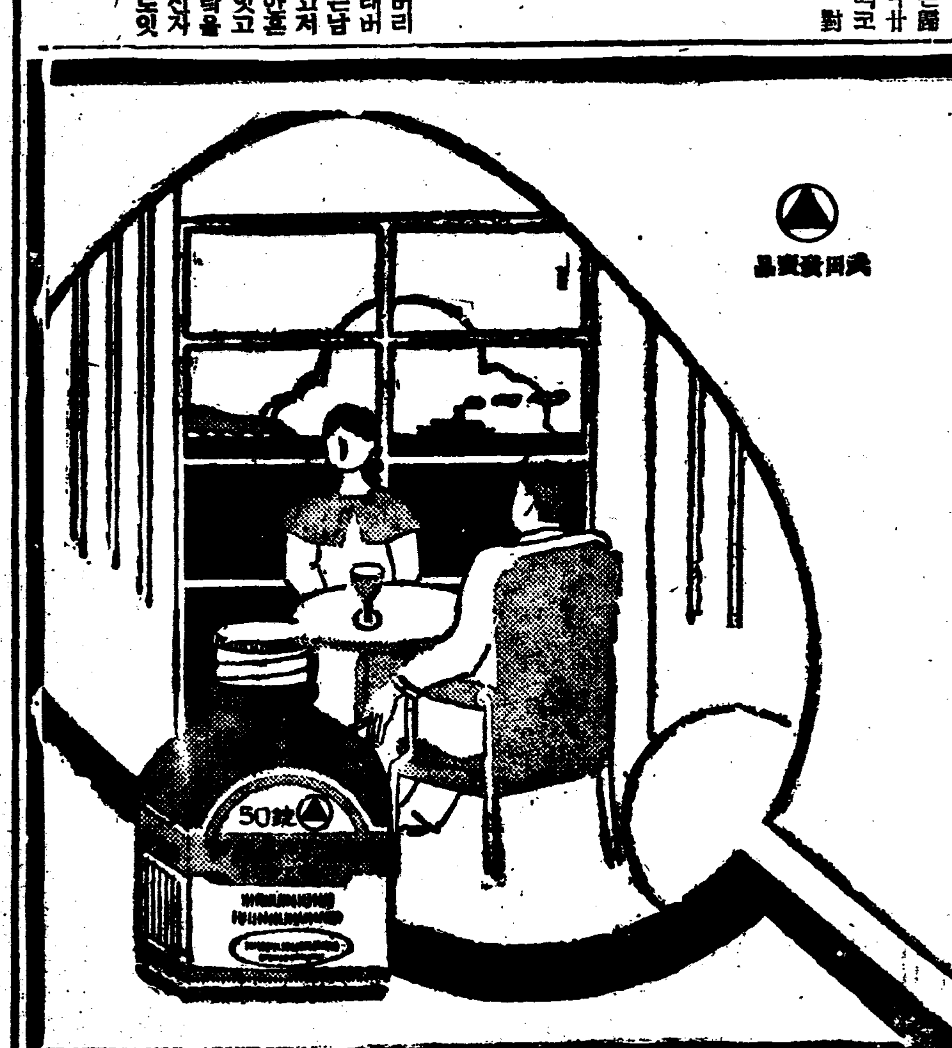
泄瀉는 腸內의有害物質을 迅速히體外에 排泄할라고하는 自然의妙機이다。泄瀉治療에잇서서 이妙理에基하야 먼저下劑로서 腸內의有害物質을 迅速히體外에排泄한後에 아루시린錠을服用하면 奏效가 優秀하다。

【價格】10錠(三〇錢) 20錠(五五錢) 50錠(一圓) 100錠(一圓八〇) 300錠(四圓八〇)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武田發賣品



36—1330(O)

燃料對策 (四)……張元俊

▲問題의發端과進展

當局에서는 無煙代用燃料인 石炭液化工業에 對하야 一言하엿거니와 目下 政府及總督府에서 補助代用燃料로서 重要視하는 알콜工業의 經濟的價値와 可能性에 對하야 一言하면 大體다음과갓다

이알콜工業의 助成策을 當局이 發示하게된 主要한目的은 民間에서 消費하는 揮發油를 節約하야 實用에充當하는데잇는데 그具體案으로서는

一、民間自動車數를十萬臺(現在는十四萬臺)로하고 그數五萬臺를 改造하야 木炭 又는 코ー크스自動車로하는데 改造費는 一臺에 對하야 五百圓 全額二千五百萬圓中 半額을 國家가 補助하는것

二、개솔린에 一割 乃至 二割의 알콜의 混和加入

三、右消費에 對한 알콜의 增產方法으로 經營ー主로 補助金二百五十萬圓으로서 酒類三十萬石을 增產하는것等

等이데 現在 그原料資源으로서 問題에오르고 잇는것으로는 木材(主로 廢材)、甘藷、馬鈴薯、高粱、其他玉蜀黍、米等이다

첫재 木材資源은 日本內地、朝鮮、滿洲、樺太、臺灣을 通하야 相當한 立木의 蓄積量을 蓄하고잇음으로 原料에不足을 늣기지는안흐리라고하나 그工業化의 經濟的打算에잇서서 아직 擔信이업는 關係로 目下 新義州에서 廢材를 利用하야 無水알콜工業을 計劃하는 程度에 不過하다 다만 이것은 廢材이 거의無償으로 獲得되기때문이다

다음은 穀類澱粉을 利用하야 알콜을 製造하는 問題인데 이제 朝鮮產各穀物別 石當알콜의 生產量을보면

種類	澱粉含有量 %	純酒精石數 石
高粱	六〇、〇〇	〇、三二二
玉蜀黍	六八、〇〇	〇、三五四
甘藷(生)	二〇、〇〇	〇、二九七
同(乾)	三二、〇〇	〇、四六一
米	七六、〇〇	〇、四三〇
馬鈴薯	一五、〇〇	

으로 그純酒精出量은 理論的數量인데 實際는 仕込에서부터 蒸溜에이르기까지의 損失은 約一割五分 乃至 二割가량이라함으로 前記 純酒精石數에서 一割 乃至 二割을 減하여야 實際的數量이될것이다 그런데 이穀物澱粉利用의 알콜製造工業에 對하야 專門家의 意見을 드르면 原料及生產高로 實現이 極히 困難하리라고한다 그各種別에對한 數字的檢討는 資料가 不充分한 關係로 알수업스나 이제 米의酒精化에 對한 府醸谷技師의 硏究에 依하면 아미로法에 依하야 玄米(水分一五%含有)一石으로부터 約三斗七升(九五%)의 알콜을 어덧다 이比例로서 米를 工業的으로 알콜化할에는 그生產費가 알콜一石當 四十六圓八十錢 販賣費가 二十一圓을要한다고한다 가령 米百萬石을 알콜化하면 約三十七萬石의 알콜을엇는데 그生產費는 一千七百三十萬圓 販賣費 七百八十萬圓 計 二千五十萬圓으로 알콜一石當 四十六圓八十錢이된다 이것은 개솔린 一石當 十三圓가량에 比하면 實로三倍餘에 達한다 이에徵하야보면 高粱、玉蜀黍、甘藷、馬鈴薯等이 米에比較하야 低廉하다고는 하지만은 此等 穀類澱粉을 利用하야 製造하는 알콜이 개솔린價格에 比하야 高價인것이 事實이라할 그工業化에잇서서 幾多의 難關이잇는것은 明瞭한일이다

最後로 以上 日本의 燃料對策問題를 總括하여보면 그自體가 內包하고잇는 石油資源의 缺乏이라는 弱點을 人工에依하야 解決하자는데서 出發된 問題인데 이方面에잇서서는 이미 同一한 處地에잇는 獨逸其他에서 石炭液化工業의 勃興에 依하야 于先 目前의 難關을 突破하게되엇다는 試驗이지낫고 더욱히 滿洲를비롯하야 領內各地에 石炭資源이 豊富한 點으로보아서 相當히 努力의 價値가잇다는것은 疑心할 餘地가업는모양이다 (完)

滿洲對外貿易

【新京廿日發同盟】 今年上半期中의 滿洲國對外貿易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圓)

輸出	[illegible]
輸入	[illegible]
合計	[illegible]
出超	[illegible]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輸入 四千卅五萬九千七十二圓의 增加이엇는데 輸出은 一億一千八百七十九萬八千九百卅五圓의 激增이엇슴으로 昨年上半期는 七千二百九十五萬三百十圓의 入超이엇더니 今期는 五百五十八萬九千五百五十三圓의 出超로 轉換하엿다 이와가티 貿易收支關係가 出超로轉換하엿슴은 今期大豆輸出이 一億二千百二十四萬八百二十三圓으로 前年上半期에 比하야 五千八百四十五圓 卽 四割以上의 激增을보힌때문이다 또相對國別로보면 輸出入合計에잇서 日本은 三億九千一百二十七萬五千八百八十六圓으로 昨年同期에 比하야 七千八百三十九萬六千九十三圓이 增加하고 滿洲國對外貿易總額의 約五割五分을 占하야 더욱日滿經濟關係의 不可分性을 말하여주엇다 一面對中貿易은 輸出入合計가 八千三百八十萬五千六百五圓으로 昨年同期보다 四千九百萬七千百七十九圓 卽五割程度의 激增이엇다고 한다

棉花卅週年 記念會開催 廿七日木浦서

【木浦】 朝鮮에 陸地棉이 栽培된지 三十週年이 도라왓는바 實로 그동안의 成績은 全朝鮮에 棉作面積十六萬三千七百町步에 其生產高 一億七千萬斤에 達하는데 其中 全羅南道의 生產高는 約四割에 該當하야 一般農家의 經濟上으로보아 重要한 農產物이 되야잇슴으로 全南道農會、朝鮮棉花同業會、木浦府、木浦商工會議所等 四團體의 主催로 來八月二十七日을期하야 陸地棉栽培三十週年記念式을 總經費七千圓으로 木浦에서 盛大히擧行케되엇는데 그동안 諸準備에 奔忙하든中 棉花發祥地인 木浦對岸의 高下島李舜臣碑附近에 記念碑를 建立하고 去廿一日에 除幕式을 擧行하얏다 記念式當日에는 道內外에서 招待에 依하야 約四百名來賓이 出席하리라하며 어서 三日間記念講演會가 開催될것이다

▲木浦 木浦 甲子會에서는 府內 貧困 婦女子六十餘名의 職業을 식히는中인데 그目的은 貧困家庭에서 今後 副業으로 파나마帽子를 供給하야 婦女의 副業으로 파나마帽子를 依賴하는데 잇다한다 그리고 今年부터 三個年間에 務安郡內에 一萬人의 婦女職業者를 養成할 計畫이라하며 今年內로는 全南北道에 五百名의 帽子를 養成한다고한다

▲營口 河北金融組合의 七月末現在 貸付金及 預金高는 下記와가다고한다

▲貸付金總額 五十七萬五千圓

內譯

農業貸付金四十萬七千圓

同上昨年度末收入 十六萬八千圓

▲預金總額六萬九千圓

內譯

會員預金五萬三千圓

非會員預金一萬六千圓

產業

用途가多岐한 漆樹를開發增殖

同時에採漆方法을改善코저 平南서組合設立計畫

【平壤】 漆의 利用은 逐年 그範圍를 擴張하고잇서 漆器工業에 使用됨은 말할것도업고 各種塗料、防銹塗料、活動寫眞의『필림』等 그用途는 實로 多種多樣에 亘하여잇고 또發展途上에 잇스므로 平南道에서는 風土와 氣候가 漆樹栽培에 適合할뿐아니라 空地가만코 德川 江東 孟山、陽德 价川 成川 中和等七郡에는 漆樹의 天然生이 만흐며 그中에서도 成川郡에는 五萬三千餘株나되는 天然生의 漆樹가 散在해잇스므로 이것을 利用開發하는 同時에 增殖에 拍車를加하여 農村振興을 圖키로되엿다

昭和九年度부터 五個年計畫으로 成川郡四佳面 雲泉面 通仙面 大邱面 陵中面 三德面等 六個面에對하여 每年十二萬株 總計六十萬株를 될수잇는데까지 集中的으로 植栽케하여 植栽者에게는 苗木代의 七割을 補助해주는데 벌서 九年度에 十萬七千株 十年度에는 七萬株를 植栽하고 苗木代金의 七割도 補助햇다 그런데 現在 道內에서의 採漆方法은 實로 拙劣하여 採漆量이 僅少하고 品質이 粗惡해서 商品價値가 低級하기때문에 採漆方法의 改善과 普及 그리고 品質向上을 爲하여 講習會를 開催하여 技術의 向上普及에 努力하기로되엇는데 이모든 點의 萬全策을 미리부터 樹立키爲하여 漆栽培組合을 設立키로되여 爲先 四佳 通仙 雲泉三個面에 組合을 設立케되엿다한다

農林局의 畜牛獎勵

方針의內容

總督府農林局에서는 畜牛生產增加의 一方策으로 全朝鮮 約八十個郡의 生產適地를 選擇하야 同郡農會로하여금 國費補助아래 每年一千二百四十頭의 繁殖用牝牛를 購入하야 牝牛의生產率을 七十%에 達하도록하는同時에 增殖케할터이다 그러고 이繁殖牝牛 設置事業의 約八十個郡農會로하야 國費補助아래 畜牛生產獎勵技術員一人을 設置하고 畜牛生產上必要한 指導를 할터이다 畜牛의 增飼를 容易케할 方針으로 總督府畜產試驗場、道牧畜場等 其他에서 畜牛飼料의 生產利用에 關한 試驗硏究를 하는 同時에 道、郡에서 農用林地의 設定利用法을 考究하고 또 野乾草의 適期採取貯藏을 獎勵할은 勿論、大豆粕 其他金肥의 飼料化로 飼料의 充實을 圖할 것이다 또 去勢肥育의 獎勵에 對하야는 畜牛의 去勢及 肥育의實施는 飼牛經濟를 向上케 하며 畜牛의 改良增殖上 效果가 잇는것도 아직 一般農家가 이에 關한知識이업는터이므로 當分間 國庫補助아래 去勢는 各道를 通하야 三、四歲의牡牛를 每年約一萬頭식 實施하는同時에 肥育은 現在實施를 보게하며 그素地가 잇는것과 또는 取引上 利便이 만흔 五個道를 選擇하야 每年約五千頭를 實施할 方針이라고한다

長霖繼續으로 綾州의薄荷凶作

組合에서新價格發表

【綾州】 綾州地方薄荷生產은 全朝鮮의五割을 占하고잇는데 天候不順으로 大減收를 示하고잇는바 二番刈取期인 只今까지 長霖은 如前히 繼續되어 發育에 被害가 多大하얏슬뿐아니라 薄荷 蒸分이 極少하야 農村에서는 만흔 打擊을 밧고잇다는데 八月二十五日 綾州薄荷組合에서는 다음과가튼 時勢를 發表하얏다고한다

標準價格八圓三十七錢

A 八圓四十二錢

B 八圓十七錢

全南棉凶作難免

【光州】 今年 지리한 長霖으로 因하야 全南의 農作物 被害가 慈에차히어잇다 그러고 그被害의 主因은 前記한바와가티 長霖으로 因하야 棉의發育이 不良한후에 棉根의腐敗가 자못甚大하야 凶作을 難免할 狀態이며 全南郡가운데는 半作에 不過하게되야 農家에서는 憂慮하여기때문이라한다

全南夏秋蠶掃立量 五萬五千五百餘枚

【光州】 全南道 今年夏秋蠶掃立은 夏蠶七千百二十枚로 長城郡의 一千六百三十枚를 筆頭로 光山郡八百九十枚 和順郡八百十枚等을 加하야 今年의 夏秋蠶掃立量은 四萬九千四十一枚인데 城羅州兩郡은 各四千枚의 增加를 보이고 高興 潭陽 谷城各郡은 三千枚를 넘어 合計五萬五千五百五十四枚이란 前年에比하야 實로 五千七百九枚의 增加를보게 되얏는바 道內各郡別을보면 다음과갓다한다

郡名	枚數	前年比增加數
光山	四、八八〇	一六
潭陽	四、一七五	三一九
谷城	四、一三三	五三一
求禮	一、六五〇	一〇九
光陽	一、四〇〇	一四五
麗水	三三〇	一〇
順天	三、八〇〇	五六四
高興	五、二五〇	一、〇七一
寶城	二、四〇〇	二七四
和順	三、八六九	五六七
長興	一、七〇〇	七八
康津	二、二五〇	四
海南	一、五〇〇	二五五
靈岩	九〇〇	一五五
務安	一、九〇〇	二四五
羅州	五、六七四	六六二
咸平	二、〇八四	三五
靈光	一、六〇〇	一六八
長城	七、〇〇八	六二一
莞島	一一〇	一
珍島	二〇〇	
濟州	八五〇	六
合計	五五、五四五	七〇九

棉作은良好나 田穀은全滅狀態

盈德地方의長霖被害莫大

【盈德】 慶北盈德地方도 一般으로 間接直接의 水害가 莫大하야 繼續하는 長霖으로 田穀은 全滅狀態이나 이에 反하야 棉作만은 良好한 成績으로 今年度總播種面積은 二百二十餘町步 收穫豫想高는 七十斤가량이라는바 假當 盈德郡農會에서는 아프로도 더욱 指導、獎勵할 計畫이라고한다

谷山郡春繭販賣高

【谷山】 谷山郡은 養蠶으로 有望한地帶로 今春의 養蠶狀況을 보면 養蠶戶數六、〇一五戶에 掃立枚數六、二二七枚엿스며 收繭量은 一四四七七八瓩으로 良好한成績을 나타내엇는바 販賣高를보면 七一四七三三圓에 五九、四三二、七五錢이엿다한다

鴨綠、豆滿兩江 發電力調査

明年度부터着手計畫

總督府遞信局에서는 昨年度부터 四個年 繼續事業으로 調査費六十五萬圓을 計上하야 朝鮮內의 水力調査에 着手하얏는데 다시 十二年度부터 三個年繼續事業으로 調査費三十五萬圓으로 鴨綠江、圖們江(豆滿江)의 水力調査에 着手하기로되엇다 이兩基本及 應用調査의結果 엇는水力發電力은 約百萬키로라고 보인다

長津江水電의 第三發電所建設

場所는龍水驛對岸

長津江水電에서는 西朝鮮、北朝鮮의 一般電氣需要增加와 元山의 朝鮮石油、興南의 朝鮮窒素工場의 電力需要激增으로 現在의 發電能力으로는 이에 應할수업스므로 目下 着工中의 第二發電所의 完成을 기다리지안코 近日中에 繼續하야 第三發電所의 建設에 着手하기로 決定하얏다 同發電所는 新興鐵道龍水驛對岸에 建設 水路(下岐川 龍水洞)四、五키로 有效落差百三十一米로 發電能力은 四萬七千키로이다 右第三期計畫의 完成에 依하야 長津江水電의 總發電能力은

第一期 十四萬四千키로

第二期 十萬六千키로

第三期 四萬七千키로

合計 二十九萬七千키로

로될터이다

◇第二發電所는近近完成 目下建設中의 第二發電所는 來年秋까지 完成하고 同發電所는 來年末부터 發電할 豫定인데 一號發電機가 十一月부터 運轉을開始 第二、第三、第四發電機는 來年三月頃 運轉하기로되엿다

稀有의不漁로 鰮油粕昂騰

凶漁打擊은多少緩和

【新昌】 東海岸의鰮漁는 今年度에들어 海流關係의 不漁로 一日平均三、四千樽조의 漁獲을보든 新昌港도 比前年 水揚高半減의 狀態로 그前途를 悲觀하게하든바 이에因하야 鰮油粕의 市勢는 好調를 보하야 顯著히 昂騰하야 油는 三圓九十五錢假量으로 前年보다 一圓五十錢高이며 粕도 三圓九十錢假量으로 八十錢高를 示하고잇스므로 水產業者는 漁獲은 昨年의 六割程度로 減少되엇스나 市場의 好況에 依하야 不漁를 補充할수잇서 比較的 樂觀하고잇스며 秋鰮의 漁獲에 期待를가지고잇다한다

日用商品市況

二十五日 京城市內의 海產物市況을보면 大體다음과갓다

▲암치 昂騰 암치는 當節임에도 不拘하고 依然 惡天候의 關係로 產地의 製品이 腐敗되는것이 만허서 需要地에 入荷가 激減될뿐아니라 이미 京城市場에 드러온 在庫品도 品質의 惡化를보아 良品이 殆無한狀態로 市勢는 高調를 示하야 今日市勢는(一尾)에 九十錢 乃至 四圓으로 賣買되는 狀態이다

▲明太 保合 乾明太로 亦是 天候不順으로 入荷 實行이 모다 減少되엇는데 今日市勢는 한짝(二十三壽)에 對하야 二十圓 乃至 二十三圓가량으로 前週와 保合이다

▲메르치 不變 메르치는 良品의 入荷가업는 우에 亦是天候不順한關係로 需要가 減少되야 今日市勢는 每貫에 九十錢乃至 一圓卅錢가량으로 前週와 不變이다

▲大口魚 保合 乾大口는 天候不順으로 實行이 不良한우에 알치에 壓倒되야 市況이 不振狀態로 今日市勢는 每斤에 廿五、六錢가량이다

▲미역 弱保合 미역도 雨天의 影響을바더서 市況이 不振狀態에잇서 今日市勢는 한손(二十닙)에 對하야 長藿一圓二、三十錢 乃至 二圓卅錢、沙草七十錢가량으로 弱保合이다

▲錦山新蔘販賣價格

	松號 圓	竹號 圓	梅號 圓	櫻號 圓	蘭號 圓
四〇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二〇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四〇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五〇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六〇	ー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八〇	ー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〇〇	ー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無片	ー	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特品大片價格

	松號 圓	竹號 圓	梅號 圓	櫻號 圓
二〇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尾蔘 鶴號 [illegible] 龜號 [illegible] 鹿號 [illegible]

主要한副業展望

芸薹栽培는 어떠할가 (七)……鄭求興

芸薹는 本來 北部歐洲原產으로 古代부터 西細亞地方에 傳來하야왓고 따라서 朝鮮도 오래前부터 輸入하야 栽培하얏스나 그年代는 不明하고 그栽培도 遲遲하야 發達치못하야 現今에 와서는 芸薹라는 것이 어떠한것이지 一般이 아지못하는 狀態이다。

芸薹油는 옛날에는 燈火油로만 使用하얏지만 今日에와서는 食料로는 勿論이요 諸般機械油에 使用되며 油粕은 조흔 肥料가되어 用途가 자못 廣汎하다。

그 輸移出量을 보면 一千八百萬斤 金額으로 三百三十餘萬圓이며 此를 原料로보면 每年約二億斤中 五千五百萬斤假量은 每年 海外로부터 輸入하는 狀態에잇다。

또한편 機械에 使用할을따라 需用上으로도 多量이 必要하므로 그栽培는 漸漸 必要할것이며 農副業으로도 將來性이잇다

芸薹는 本作이 아니오 만히 裏作으로하는데 裏作表에 不過한 조흔 土地라면 生育이 잘되는바 現在 朝鮮에는 裏作普及에는 相當한 面積이 잇스며 農閑期勞力의 經濟化와 土地利用價値向上等의 見地로도 이芸薹栽培는 有利하고 必要하다고 생각되다

以下 栽培法과 將來性에 對하야 간단하게 記述하야 보기로한다

品種

芸薹를 大別하면

一、普通種

一、蕪菁種

의二種으로 區別되며 各種에는 人工交配며 自然交雜으로 만흔 品種이 잇스나 方今 만히 栽培하고잇는 種類는 蕪種이니가한다

그性狀을보면 우리가 만히 栽培하는 白菜와 비슷하다。 單只 葉이 多肉이며 直根에 鬚根이 만타 含油量은 採油機에 따라 다르나 普通 四〇ー五〇%는된다。

芸薹는 溫暖地方의 原產이라함은 前述한바와 갓거니와 現今 伊太利、獨逸、佛蘭西、瑞典、英領印度、中國等 만히 栽培하고잇스며 日本內地에서는 北海道로부터 南方沖繩에 至하기까지 栽培하고잇다。

朝鮮의 栽培를보면 三南地方이 有利할듯하며 그北限은 忠南이리라고 생각된다。

土地는 어떠곳이던지 되나 肥沃한 壤土가 第一조라

播種

播種에는 春秋二期가잇스나 日本內地에서는 만히 秋期에播種하고 秋季에 移植한다 日本內地서 만히 栽培하는 地方의 播種期 及移植期를보면

	播種	移植
千葉縣	九月初旬	同中旬
三重縣	十一月下旬	同十二月上旬
北海道	八月下旬	九月上旬
大阪府	十一月中旬	同下旬
兵庫縣	九月下旬	十二上旬
滋賀縣	九月中旬	十一月中旬
愛知縣	十月上旬	十一月中旬
福島縣	九月上旬	一月下旬
靑森縣	九月上旬	十月下旬
福岡縣	九月下旬	十一月中旬
熊本縣	九月中旬	ー
鹿兒島	九月中旬	ー
忠淸南道	九月初旬	三月中旬

苗床

忠南例를 들어보면 苗床은 本畓一段步에 對하야 十五坪이 必要한데 九月上旬頃 畓地를 耕起하고 土塊를 잘 細碎한다음 畦幅五尺、高三寸、長은 適宜한 角畦를 形成한 後 條間一尺에 種子四勺을 빠린다 肥料는

種類	施肥量	施肥期	備考
堆肥	[illegible]		
大豆粕	[illegible]		
人糞尿	[illegible]		
過石(三〇%)	[illegible]		一、追肥期九月下旬

間引은 九月下旬 十一月上旬의二次假量하며 除草는 때때로하면조라

移植

溫暖한地方에서는 年中移植을하나 忠南地方은 冬期 寒氣가 甚함으로 그成績이 不良하야 大槪 翌年三月中旬頃에 한다

移植은 水稻收穫한후 耕起하여두엇다가 三月頃 整地하야 畦幅一尺 株間一尺으로 作條하야 한곳에 一本식 栽植한다 肥料는 原肥로 堆肥三〇〇貫、大豆粕一〇貫、人糞尿五〇貫、過石(三〇%)五貫、草木灰一〇貫을 주고 三月下旬에 追肥로 人糞尿一五〇貫을 준다 면조라

그후作業으로는 移植한 苗는 全部活着하는때도 잇스나 大槪는 十餘本活着하지못하는때가 만흐니 미리 本畓한구석에 準備하야 두엇다가 追時補植하게할것이다 四月中旬頃이되면 摘芯할때니 그前에 倒伏되지안케 하면 매우조타 開花前에 側枝가 分枝하면 成長이 均一하고 또 成熟이 均一하게되니 될수잇는데로 摘除케 할것이다 收穫은 大槪六月中旬이되면 莢의 大部分이 黃色을 띄게되니 晴明한 日氣를 골래 뿌리채 刈取한후 圃場에서 二日間 乾燥식힌후 在來式으로 손으로두드리던지 한후 간단한 搓機로 채로 처가지고 키질을하야 收納한다

以上은 芸薹栽培에 對하야 大略을 記하얏스며 最後로 芸薹에對한 缺點의하나인 品種中 早熟系를 發見할것이다 方今 朝鮮서 栽培하는 品種은 五ー六十種되나 大槪가 晩熟種이어 收穫이 六月中旬을넘어 下旬에 이르러 水稻移秧에 困難한 點이 만흐며 現在 早熟種으로는 六月中旬에 收穫이되나 收量이 極少함으로 一般栽培에는 適當치못하다

方今 道農事試驗場에서 그點을 改良하기爲하야 人工的交配를 하야 早熟系으로 多收量의 品種을 어들려고 苦心中이다

如何間 芸薹의 將來는 相當히 有望하다고 생각되며 芸薹栽培가 普及됨을 따라 製油工業도 갓가운 將來에 勃興될 줄로 밋는바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五二	金銀鑛	咸南高原郡水洞面 永興郡橫川面	七月三十一日	元山府舘石洞 代表者 金浩鉉 永興郡億岐面 [illegible] 元山府本町 金東燁
一三三五三	金銀鑛	平南平原郡[illegible]面	七月三十一日	[illegible]
一三三五四	金銀鑛	全北茂朱郡富南面 鎭安郡鎭川面	七月三十一日	新義州府[illegible] 代表者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三三五五	金銀鑛	江原華川郡下南面 上西面	七月三十一日	華川郡華川面 申乙甲
一三三五六	金銀鑛	全南高興郡豆原面	七月三十一日	高興郡豆原面 代表者 金基彦 同 李石孝
一三三五七	金銀鑛	平北江界郡[illegible]面	七月三十一日	京城府古市町 朝鮮砂金鑛業株式會社
一三三五八	砂金	忠南舒川郡[illegible]面 赤谷面、恩山面	七月三十一日	京城府古市町 朝鮮砂金鑛業株式會社
一三三五九	金銀鑛	咸南長津郡郡內面	八月一日	京城府明倫町 崔正玉
一三三六〇	金銀鑛	咸北城津郡鶴城面 咸南端川郡廣泉面	八月一日	京城府明倫町 李載明
一三三六一	金銀鑛	忠北槐山郡佛頂面 忠州郡利柳面	八月一日	扶餘郡扶餘面 代表者 黃漢 同 黃洽伊
一三三六二	同	江原旌善郡旌善面	同	旌善郡同面 代表者 朴永浩 同 車炳道
一三三六三	同	全北金堤郡鳳南面 井邑郡甘谷面	八月三日	群山府千代田町 山本一男
一三三六四	同	全北金堤郡鳳南面 井邑郡甘谷面	同	群山府千代田町 山本一男
一三三六五	同	忠南瑞山郡貞美面 唐津郡高大面	同	京城府御成町 元胤洙
一三三六六	同	咸南定平郡長原面	同	元山府本町 代表者 田鳳秋 平壤府箕林里 洪紹泰 定平郡長原面 黃全伊
一三三六七	同	忠北忠州郡忠州邑	同	忠州郡忠州邑 久島次男
一三三六八	金銀鉛鑛	江原高城郡縣內面	同	通川郡順達面 代表者 張雲鶴 同 金秉杰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二三八	慶北安東郡吉安面	七月二十五日	大邱府德山町 代表者 文聖鎬 馬山府榮町 西田木惣市
一一二八九	江原高城郡新北面	七月二十五日	安岳郡安岳邑 代表者 宋榮環 京城府太平通 朱忠信 同 新設町 王再詰 同 [illegible]町 元泓健
一〇六三五	全北任實郡聖壽面	七月二十七日	全州府大和町 代表者 申德均 同 多佳町 蘇興善 任實郡聖壽面 洪桓杓
一〇九三一	慶北奉化郡春陽面	七月二十七日	京城府平洞町 白川隆彦
一三三八五	江原江陵郡連谷面	七月二十七日	京城府新堂町 代表者 洪在龍 江陵郡新里面 朴鳳龍
一二〇五四	平南成川郡大邱面 陽德郡陽德面	同	平壤府將別里 代表者 張得龍 同 櫻町 桑谷實 同 [illegible]町 岡村君次 同 將別里 金有恒
七六八五	慶北高靈郡高靈面 慶南陜川郡冶爐面	七月三十日	昌原郡昌原面 佐藤嘉十郎
一〇三七九	咸南新興郡下元川面	同	京城府御成町 藤田精一
一一六八八	同豐川郡安水面 新興郡上元面下元川面	同	同
一一八三〇	同新興郡下元川面	同	同
一三三三七	咸南新興郡東上面	同	京城府竹添町 代表者 姜建明 同 太平通 姜凱三德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六三六	全北任實郡聖壽面	七月二十五日	洪淳禎任意脫退함
一〇九八一	忠北永同郡上村面 全北茂朱郡雪川面	七月二十七日	中尾政三郎任意脫退함
一〇七七三	平北熙川郡新豊面	七月三十日	崔之化任意脫退함
一〇〇六五	咸南永興郡鎭坪面	同	成十郎任意脫退함
一三三三八	咸南新興郡東上面	同	洪在禧任意脫退함
一二六〇八	全南麗水郡華井面	七月三十一日	崔泰俠任意脫退함
一三三三〇	慶北義城郡玉山面	同	李吉男任意脫退함
四八〇三	黃海松禾郡蓮井面	同	韓相鎬判決에依하야脫退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三三一	慶南山淸郡三壯面	七月二十九日	抛棄
九五七五	慶北達城郡公山面 城北面	八月十九日	取消
一〇八八四	慶北奉化郡祥雲面 榮州郡伊山面 鳳山面	八月十九日	取消
一一六〇九	慶南陜川郡[illegible] 大幷面	八月十九日	取消
一〇八一九	平南順川郡[illegible]面	八月十九日	取消
七四二三	平北雲山郡東新面	八月十九日	取消確定權利를除하야鑛業權을目的의範圍內에서存續함

黃昏 (166)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전경(前景)(十一)

키적은 녀자사무원이 려순의 겻으로 와서 일하는것을 한참 디려다보고잇더니,

『려순이도 「광고」를 보앗소?』

하고 뭇는다。

『아니요…… 광고라니요?』

려순은 시침을 떼고 되려 이러케 반문하엿다。

『그까짓건 알어 뭘하겟송 안본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지…… 쓸데업시 의심 바들거 잇소?』

『무어데 그리서요?』

려순은 여전히 시침을 떼고 물엇스나 사무원은 그말대답은 하지안코,

『글세 기르든강아지 발뒤굼치를 무는심이지…… 거, 뭐뜰이란 말이오? 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시킨건 직공들을 위해서 한일인데……』

하고 누런 이빨을 들어내노며 제깐에 역정을 낸다。

『무슨 말성이 생겻서요?』

『아니……。그래봐야 풀나서 바위 차는심이지 어듸 어림이나 잇소?……그저 말업시 제일이나 부지런히 하는게 상책입네다』

순간 려순은 까닭업서 사무원에게 증오가 생겨서 툭 쏘아보게 날듯한 어조로,

『어듸 누가 뭐랩니까?』

하고 물엇다。

『글세말이오…… 려순이는 잘모르는일이지만, 삼년전에도 펜 이들 까닭업시 서두든일이 잇는데…… 그때 제일 주저대든 동필이가 지금은 암팡서 잠자코 잇는것만 부우그려…… 언제 아주 얌전한사람이 되어서, 회사에서도 엣일을 불거히코 퍽 동정해주는터이 아닌요』

『동필씨를 회사에서 그러케 잘 생각해주어요? 하지만 뭘물론 거라구 잇서요。 역시 맛찬가지 직공이 아닙니까?』

『그야 회사에서 하는일을 공장에서 알수잇소? 또 알어서는 안되거든……하지만 웃사무실이나 주임에게는 벌서 적다 생각이 잇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얌전한 사람은 별일업는데…… 그러면 동필씨는 말성부리든일을 지금 입는심이 아닌니까? 호호호……』

『아니 그러케 아니지요 그는 그전에 그런 일만 업섯드면 벌서 사법공이 되지오라고 알로르든이자 담당이 될러데 이를 하면 그일때문에 느저지지요』

『그러면 자자는 그러케 되것군요?』

『글세 그야 알수잇소만 가령 이제도다구하더라도 거, 얼마가 순해요…… 여순이도 아무일 상관말고 모르는사람이나 잘 일깨워주우。 새공장만 되면 아마……』

하고 말하다가 사무원은 깜짝 놀래듯이 돌아서며

『아이구 주임 오셧소?』

하고 조금비켜서며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는

『그러지안허도 지금 주임, 말슴을 하는길인데 마침 오셧군요……새공장만되면 려순이는 떼로 생각해주신다고……주임께서도 말슴하시지 안햇서요?』

하고 웃음을 짓는다。

『물론이지요。 려순씨는 여러사람의 모범이 될만한사람이니깐……』

하고 주임이 더욱 가까히오며 깔깔웃는바람에 려순은 그만 입을 확다다물엇다。

그때 분이가 려순이한옆을 건너다보며

『애 저것 좀 봐』

하고 복술이를 불럿다。

『흥! 저넘이 한해 재이드니 요새는……그러나 어림도 업따 공장에 참 염냥은 조아…… 책편한 줄을 모르는모양이야 아마 그염중에 부르건 보통사람의 살이아니지? 사람의 살 가트면 붓그러운줄도 알고 창피한줄도 알고 남의눈치도 알 거이냐?』

『호호호……그두 그래 아마 숑치치을 뻔권도 뚝쏘도 안해할 걸』

『애, 쉬――』

나 잇나……』

『애 저거저편대(反帝)에 네코 주리를 풀어봐라。 어듸 어렴이 혹보는 그들의편을 쏴납게 노려보고 잇다。

『에구』

분이도 그편을 봣다가 엉겁결에 머리를 흘렷다。 혹보가 정거치 그러며 이편으로 걸어오는것이엇다。

『무슨애거를 해서?』

하고 그는 분이의뒤에 와서 두서를 노려본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안코 손만 걸삿게 놀리고잇다。

『무슨 애거를 하니말야?』

『아뭇도 안햇서요』

『분명 안햇서?』

혹보의 침이 분이의 뒤통에 튀엇다。

『안햇서요!』

『밧치한번! 잘하 봐주엇는데……그래 안햇서!…… 잇다가 휴식시간에 사무실로와!』

하고 혹보는 섬이 뚜르서 저편으로 가버린다。